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인재 육성

방과후·늘봄학교 온라인 Newsletter

발행인: 류방란 | 편집인: 이성희 | 편집담당: 박성희

1. 전문가칼럼

- 학교복합시설 정책 동향
-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이상민)

2. 현장 속 방과후·늘봄학교

- 사부작 사부작 함께 해라! 우리는 마을에서 함께 자랍니다!!
(자람도서관 관장 | 전민성)
- 서로를 돌보는 마을공동체 늘봄, 마주봄, 다시봄
(내동작은나무마을어린이도서관 관장 | 정연우)
- 학교 인파를 넘나들며 배우는 월문형 미래학교를 꿈꾸다!
- 남양주월문초등학교 늘봄학교(온누리학교) 이야기
(남양주월문초등학교 교장 | 박준표)
- 지역을 살리는 교육,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곡성군미래교육재단 팀장 | 김현경)
- 마을밀착형 지역특화공모사업 굿센스(GOOD·지역아동센터·SCHOOL)
(지역아동센터 경북지원단 단장 | 권현진)

3. 방과후·늘봄학교 소식

- 주요 언론기사
- 주요 연구결과
- 주요 입법동향 및 정보

4. 알림

- <현장 속 방과후·늘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 통권 83호 원고 모집

🔔 구독신청

'방과후·늘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www.afterschool.go.kr)에서 뉴스레터
구독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신청 : www.afterschoo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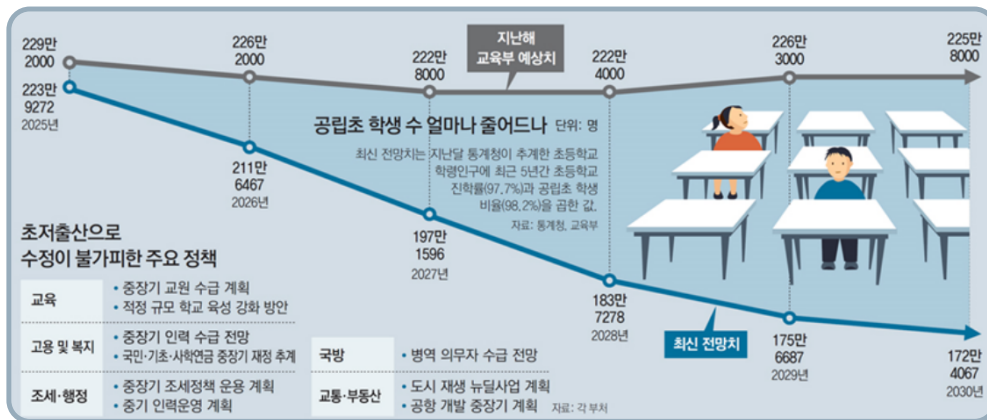
학교복합시설 정책 동향 -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이 상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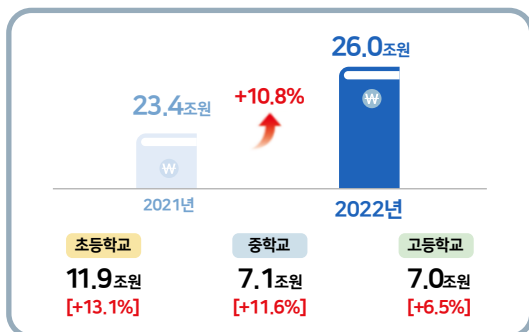


◆ 늘봄학교 추진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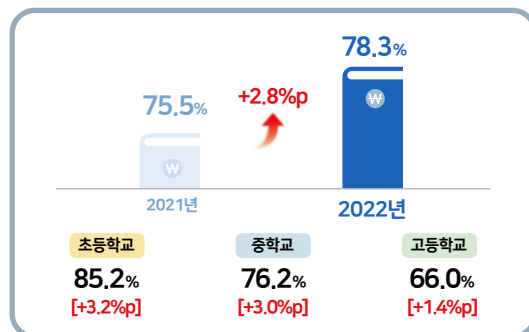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소멸 우려가 증가하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통합으로 인한 폐교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지역사회 해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기준으로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고치(26조원)를 기록 중이며, 사교육 참여율 역시 78.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학력결손 회복, 돌봄 수요 등에 따른 초등 사교육비가 급증하였으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은 저출생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가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돌봄 수요를 국가가 흡수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사교육비 총액 변화, '21~'22



↑ 사교육 참여율 변화, '21~'22



전문가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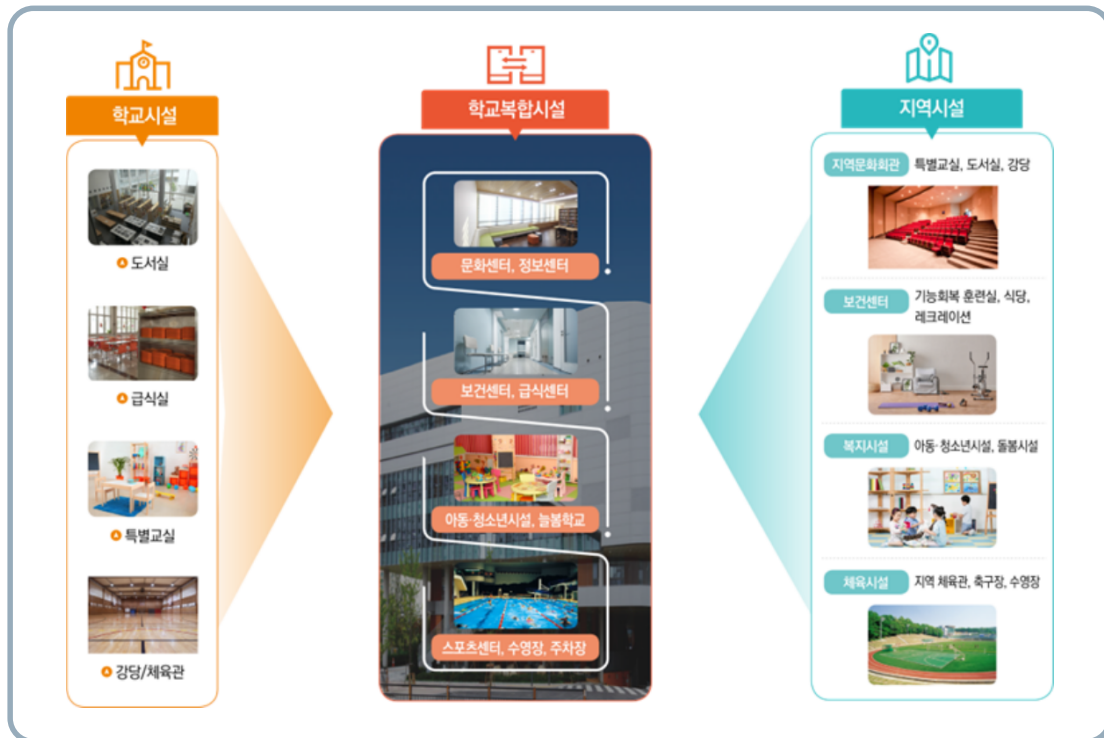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학교복합시설은 이러한 저출생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배경에서 학교가 선도적으로 지역의 발전동력 및 주체의 역할을 맡아 학령인구감소 및 지역사회 해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저출생 현상으로 인한 사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23년 3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에 부족한 교육·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학생에게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등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외된 지역의 주민에게는 지역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소외된 지역에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지역에서는 학교의 유휴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하여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은 크게 국가 책임 교육·돌봄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 지원 강화, 지역 특성과 학교 환경을 고려한 사업 범위별 학교복합시설 유형 마련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시설비, 운영비 등 지자체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부총리 중심의 범정부 협업을 강화하는 등 행·재정 지원 강화 등 크게 세 가지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추진과제

1 늘봄학교 지원 _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지원

- 모든 기초지자체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 돌봄 연계 기능 시설 조정
- 늘봄학교 운영 지역 우선 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지원

- AI, 코딩교육 등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 공동 이용을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
- 저학년 학생을 위한 아동친화시설 조성

2 지역소멸 대응 _ 지역·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제공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방안

- (신도시) 신설단계부터 지역연계 고려
- (구도심) 정주여건 개선으로 도심공동화 대응
- (농어촌) 지역거점화로 지역소멸 대응

적용범위를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유형화

- (단일학교) 단위학교 교육여건 개선
- (마을단위) 유휴공간 활용으로 정주여건 개선
- (지역연계) 지역통합의 구심점 역할 주도

3 행·재정 지원강화 _ 제도개선 및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업 활성화

지자체 지원을 통한 적극적 참여 유도

- 사업비, 관리 운영비 지원
-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지원
- 현장 지원센터 지정하여 원스톱지원

제도개선을 통한 부담 완화

- 투자심사 간소화 등 사업일정 단축
- 관리·운영 주체 명확화로 책임 완화
- 지역인프라 활용을 위해 대학까지 대상 확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지원을 위해 기존 학교복합시설 설치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모든 229개 기초지자체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목표로 신설되는 학교복합시설에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멀티룸, 수영장, 체육관 등을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운영 학교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수영장, 콘서트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문화·예술·체육 등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인근 학교 학생들이 공동 참여하는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시설 지원을 위해서 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방과후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별도 지도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바닥난방, 세면대, 안전장치 설치 등 아동친화적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러한 학교복합시설 구축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내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늘봄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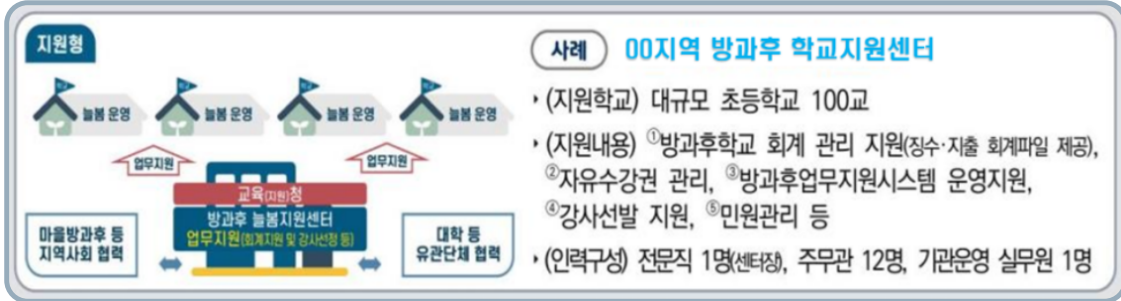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 방과후·늘봄지원센터(예시) >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특화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신도시, 구도심, 농산어촌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학교신설·폐교 등 학교 생애주기를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특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특성 고려 유형화 방안(안)

1	2	3
<p>신 도시</p>	<p>구 도 심</p>	<p>농 산 어 촌</p>
<p>학교 신설단계에서부터 지역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한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정주조건 개선 및 재정 효율화</p>	<p>도심공동화에 의한 학생수 감소에 따른 유휴공간에 주민이 요구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여 도심 거점 역할 주도</p>	<p>학교에 지역 공공·문화·복지 인프라를 집약하여 마을 거점 기반시설로 조성함으로써 정주조건 개선 주도</p>
<p>※ 신도시 개발 및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학교 신설 계획 시 지구단위계획부터 지자체·교육청의 논의창구 마련</p>	<p>※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참여형 설계 등을 도입하여 주민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조성</p> <p>※ 기존 학교부지 내 유휴시설 및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학생과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교육환경 보호 방안 마련</p>	<p>※ 학생수 감소로 인해 발생한 학교의 유휴시설(교사, 체육관 등)을 리모델링 하여 지역 기반시설로 활용</p> <p>※ 폐교에 공공기관을 이전·설립하거나 체험형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재생의 전환점으로 활용</p>

학교복합시설 설치시 학생안전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학습환경 침해 방지,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학생과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복합시설 블록을 독립적으로 설계) 적용으로 학생과 주민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하여 학생 안전과 학습환경 침해를 방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출입 통제, 출입자 동선 관리,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해소, 재난 상황 등 범죄·사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을 개발하여 학교복합시설에 스마트 안전 관리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여 안전한 학교복합시설이 구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복합시설 방문시



이러한 학교복합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는 5년간(`23~`27) 연평균 40교씩 총 200교 공모 선정할 예정이며 늘봄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초등학교 복합시설 연평균 30교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학교복합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의 약 30%를 지원하여 학교복합시설의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200교 추진

지역별 현안에 맞는 개별 사업을 5년간('23~'27년) 연간 40교씩 선정·지원 ※ 총사업비의 최대 (30%+α)지원

주요일정(안) : (4월)사업설명회 → (6월)사업공고 → (7월~8월)공모접수 · 심사 → (9월)사업확정 및 예산교부 → (10월~)지자체 · 교육청별 사업추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 공모사업('23) 40교	사업 공고 설명회	공모 · 심의 대상신청	설계	공사					
• 공모사업('24) 40교		기본협약 · 실사협약	사업 공고 설명회	공모 · 심의 대상신청	설계	공사			
• 공모사업('25) 40교			기본협약 · 실사협약	사업 공고 설명회	공모 · 심의 대상신청	설계	공사		
• 공모사업('26) 40교				기본협약 · 실사협약	사업 공고 설명회	공모 · 심의 대상신청	설계	공사	
• 공모사업('27) 40교					기본협약 · 실사협약	사업 공고 설명회	공모 · 심의 대상신청	설계	공사

학교복합시설에는 우리 아이들과 지역의 미래를 담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학교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 중심에 위치한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 · 체육 ·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교육과 돌봄 걱정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늘봄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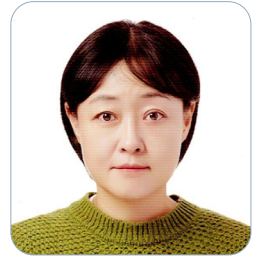
방과후·늘봄학교 소식

알림



사부작 사부작 함께 해라! 우리는 마을에서 함께 자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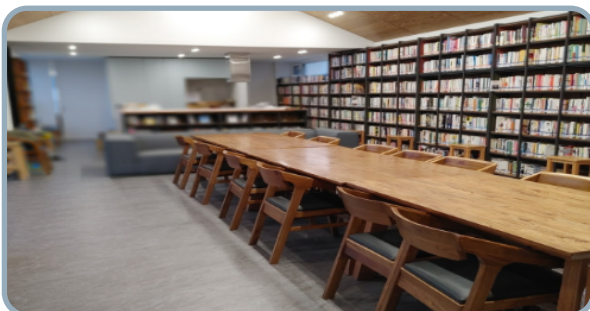
자람도서관 관장 | 전민성



안녕하세요? 강화도 자람도서관 자람지기 전민성이라고 해요. 도서관에서는 바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요. 자람~ 바람~ 라임이 딱딱 맞지요? 강화도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지붕 없는 박물관, 고인돌, 속노랑고구마, 순무김치. 이제 강화도하면 새롭게 떠올릴 수 있도록 자람도서관을 소개해 볼게요. 자람도서관은요, '멍때리기(^^;)'에 딱~ 좋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인데 책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는 범상치 않은 도서관이지요.

❖ 꿈·마음·생각이 자라는 자람도서관

실내에 넓은 창을 통해 보이는 진강산, 하늘, 눈, 밭, 갯벌, 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심란한 마음도, 짜증나는 마음도, 책 한 줄 - 바다 한 줄, 책 한 줄 - 하늘 한 줄 마음에 담다보면 문장 행간을 읽어내듯 멍때리며 내 마음의 빈구석을 늘려 갈 수 있기에 어느새 마음이 평온해지는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다지요. 자람도서관은 이렇게 책이 있는 심터로, 따뜻한 공간에서 뒹굴뒹굴 마음껏 뒹굴어가며 책과 함께 친구가 되는 공간이자 어른들에게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고 마을의 문화를 만들고 지키며 함께 누리는 마을사랑방이기도 해요.



자람도서관은 '자란다'는 말이 참 소중한데요. 자연이, 사람이, 사회가 잘 자라려면 책, 문화, 선한 방향이 잘 어우러져 서로 나누고 어울리고 소박하게 들썩들썩일 때 잘 자라게 되더라고요. 씨를 심어도 흙과 물이 서로 양분을 나누어 주고 물과 바람이 어우러지고 북돋아 주며 소박하게 들썩들썩일 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자라 꽃이 피듯, 자람도서관도 책과 자람도서관만의 문화와 사람들이 도서관 안에서 서로 나누고 어울리고 소박하게 들썩들썩 잘 자랐으면 해요.



가끔 우리말의 뜻이 명확히 떠오르지 않을 때 영어로 의미를 찾아보면 명확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영어로 환대는 warm welcome 따뜻하게 환영한다 / friendly reception 정겹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성장하고픈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오지요. 그러니 도서관을 찾는 사람의 나이, 성별, 지역, 나라 등 어떤 것도 상관없이 따뜻한 품을 내어주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이 넘쳐나는 곳이 자람도서관이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은 연결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책-사람, 사람(책)-마음, 사람-꿈, 사람-세상, 사람-마을, 사람-자연, 사람-미래, 사람-생각, 사람-가치, 사람-놀이, 사람-삶…… 도서관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양한 연결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해요.

2012년 개관 이래 참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자람도서관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만 소개해 볼게요. 초등학생들은 집에 대한 책도 읽고,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집도 찾아보고, 12주에 걸쳐 직접 자연에 있는 재료만으로 전통 방식의 <흙집 만들기>도 하고요.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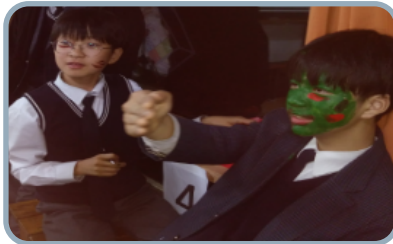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중·고등학생 형님들은 원시부족인들의 삶으로 돌아가 부족별로 땀감도 구하고, 먹이사냥게임도 하고, 바베큐파티도 하고, 직접 불에다 도자기를 굽는 '노천소성'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구워도 보았어요. '회복적 써클(Restorative Circle)' 방식으로 나만의 구덩이를 모닥불 앞에서 서로 나누는 <흙불어드벤처-구덩이 워크숍>을 1박 2일로 즐기기도 하지요.



<할로윈 축제>도 자람도서관 친구들이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외국의 할로윈 문화를 자람도서관만의 문화로 다시 만들었어요. 마을에서 함께 자람 중학생 형님들이 '귀신'이 되어 초등학교 친구들과 '5개의 생존게임'도 진행하고요. (통과해야만 사탕도 받고 집으로 갈 수 있었다지요^^) 이웃에서 정성껏 키워 기증한 호박으로 우리만의 할로윈 음식 '호박죽'도 나누어 먹고요. 무시무시한 영화도 보고, 자람도서관만의 할로윈 축제를 중학생 형님들과 동네 초등학교 동생들을 위해 함께 기획하고 나누었습니다. 자람도서관만의 나눔-어울림-소박한 들썩임이 조금은 감이 잡히시지요?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방과후학교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방과후학교' 사업을 통해 위에서 설명한 자람도서관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을에서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 문화소외지역인 강화도에서 지역예술문화교육 활성화와 창의체험활동
- 지역의 인문, 사회,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 마을문화 저장소 역할
- 인문학에 기반한 미래역량개발을 위한 창의적인 인재양성
- 마을의 돌봄기능 회복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의 다양한 장점들과 강사들을 발굴하여 서로를 지지, 응원해 주며 성장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음을 실험할 수 있는 실험터이자 배움터로 활용되었습니다.

2020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방과후학교
슬기로운 마을도서관 생활

국사동세 책꽂이 설계하는 자연물그림책만들기	책꽂이 혹은 독서록 라인댄스
둘러줘요 영어그림책	마을공동체 사자책 설계하는 인문학교실
책꽂이 개조해서독자카드 만들기 리더스클럽	책꽂이 설계 후원하는 책으로 그리다
나와 친구가-마을공동체가정들 읽어줘요-함께놀아요	

2021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방과후학교
슬기로운 마을도서관 생활 시즌 2

마을상책	마을공동체 사자책 설계하는 인문학교실
마음으로 그리다	마을공동체 사자책 설계하는 인문학교실
둘러줘요 영어그림책	열세살 인문학
동근 원 안의 평화	책꽂이 설계 후원하는 책으로 그리다
나와 친구가-마을공동체가정들 읽어줘요-함께놀아요	

사부작사부작 함께해라
참가자 모집

2022 인천교육청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방과후 학교 가을학기

함께 해라- <마을드림공방>
함께 읽다 <나도평론가마을배움터활동>
함께 묵락하다 <우리마을 국공립국소>
함께 생각하다 <나와 함께하는 인문학교실>

함께 읽는다 <우리마을 글쓰기방>
함께 묻는다 <우리마을 글쓰기방>
함께 그리다 <마을드림 그리다>

문의처: 02-6315-3370 | 강화도 문화의 집 641-14 | 지역민센터

프로그램 안내표

입차	수업시간	연차/월차/주차	요일/시간	참가인원
월차	10월 1주	1차	월요일 / 18:00-19:00	10명 (10월 2주, 3주, 4주)
월차	10월 2주	2차	월요일 / 18:00-19:00	10명 (10월 1주, 2주, 3주, 4주)
월차	10월 3주	3차	월요일 / 18:00-19:00	10명 (10월 1주, 2주, 3주, 4주)
월차	10월 4주	4차	월요일 / 18:00-19:00	10명 (10월 1주, 2주, 3주, 4주)

"우리는 사부작 사부작 함께 자라오!"

안내

- 배움터 운영으로 운영됩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합니다.
- 신청 인원이 초과되면 선착순입니다.

문의처: 강화도 문화의 집

2023년 '사부작사부작 함께해라 시즌2'는 도서관에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마을방과후학교>라는 이름으로 갑곶초등학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작작해라'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찬란하게, 산뜻하게, 넉넉하게, 왁자하게'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우리에게 왁자하게라는 의미만 부각되어 조금 부산스러운 느낌으로 뜻이 다가오지만 갑곶초등학교 친구들이 아침 시간을 **찬란하게, 산뜻하게, 넉넉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마을 안에서 마을도서관을 넘어 마을배움터이자 놀이터, 쉼터, 아지트, 사랑방 역할을 해 온 그간의 활동들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러 이유로 일찍 학교에 와야 하는 친구들을 위한 따뜻한 돌봄이 자람도서관의 마음과 맞닿아 있기에, 자람도서관만의 프로그램이 도서관에 와야만 받을 수 있다는 나름의 한계를 넘어서 학교만 와도 꼭 필요한 친구들에게 '함께 자라라' 자람도서관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현장 속 방과후·늘봄학교



• 찾아가는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구분	기간(횟수)	수업시간	세부 내용	학생 수
1	2023.3.13.- 7.3. (16주,16회) 상반기 2023.8.28.- 12.11. (15주 15회) 하반기	8:00-8:40 (월)	<함께 읽다> - 어린이도서연구회 선정, '세계어린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한국그림책 100선'과 '한국을 담은 그림책'을 기반으로 독자인 아이들이 직접 평론가가 되어 책서평을 남기며 다양한 책놀이 활동을 즐기는 프로그램	8~10명 이내
2	2023.3.14.- 7.4. (16주,16회) 상반기 2023.8.29.- 12.12. (15주 15회) 하반기	8:00-8:40 (화)	<함께 영글다> - 학습이 아닌 함께 나누고픈 좋은 영어그림책을 선정, 원서가 가지는 작품의 힘을 느껴보며 문학작품으로서의 영어그림책을 함께 듣고, 감상해 보는 프로그램	8~10명 이내
3	2023.3.15.- 6.28. (16주,16회) 상반기 2023.8.30.- 12.6. (15주 15회) 하반기	8:00-8:40 (수)	<함께 키우다> - 우리만의 꿈의 정원을 기획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씨뿌리고 키우며 식물이 자라는 전 과정을 함께 지켜 보며 원예테라피를 통한 생명과 스스로의 소중함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8~10명 이내
4	2023.3.16.- 6.29. (16주,16회) 상반기 2023.8.31.- 12.14. (15주 15회) 하반기	8:00-8:40 (목)	<함께 영놀다> - 함께 영글다 수업을 기반으로 문학작품으로 즐긴 영어그림책을 통해 다양한 놀이와 보드게임 등 영어로 신나게 놀아보는 프로그램	8~10명 이내
5	2023.3.17.- 6.29. (16주,16회) 상반기 2023.9.1.- 12.15. (15주 15회) 하반기	8:00-8:40 (금)	<함께 똥땅거리다> - 아이들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를 우쿨렐레로 배우고, 함께 연주법을 배우며 음악이 주는 따뜻함으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프로그램	8~10명 이내
방학 프로그램	*여름방학 2023.7.24.-7.28. (2시간/5강) *겨울방학 2023.12.26.- 1.9. (2시간/10강)	8:00-9:20 (1타임)	<함께 놀다> - 건강한 몸놀이를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고 내 몸의 소중함을 느끼며 친구들과 함께 노는 공동체 놀이와 몸놀이를 다양하게 즐기며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는 프로그램 <함께 읽다> - 어린이도서연구회 선정, '세계어린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한국그림책 100선'과 '한국을 담은 그림책'을 기반으로 독자인 아이들이 직접 평론가가 되어 책서평을 남기며 다양한 책놀이 활동을 즐기는 프로그램	8~10명 이내
	*여름방학 2023.7.31.- 8.4. (2시간/5강) *겨울방학 2024.1.10.- 1.23. (2시간/10강)	9:30-10:50 (2타임) *여름방학 -3주 *겨울방학 -6주 *학교 방학 일정에 따라 조율 가능	<함께 그리다> - 그림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함께 바라보고 정서표현을 촉진시키는 창작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토닥일 수 있는 시간으로 미술활동을 통해 서로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해보는 미술심리 프로그램 <함께 키우다> - 여름방학만 진행 - 우리만의 꿈의 정원을 기획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씨뿌리고 키우며 식물이 자라는 전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원예테라피를 통한 생명과 스스로의 소중함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함께 똥땅거리다> - 겨울방학만 진행 - 아이들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를 우쿨렐레로 배우고, 함께 연주법을 배우며 음악이 주는 따뜻함으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프로그램	
	*여름방학 2023.8.7.- 8.11. (2시간/5강) *겨울방학 2024.1.24.- 2.6. (2시간/10강)	<함께 짜다> - 마음 한 땀, 정성 한 땀 내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코바늘/대바늘을 이용하여 생활용품을 만들며 학교생활의 스트레스도 날리고 뜨개질을 통한 평안하고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함께 영글다+영놀다> - 함께 영글다 수업을 기반으로 문학작품으로 즐긴 영어그림책을 통해 다양한 놀이와 보드게임 등 영어로 신나게 놀아보는 프로그램		

아침 시간에 진행되는 수업이기에 과연 친구들이 출석은 잘할 수 있을지, 졸린 몸과 마음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잠시 고민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매일 다양하게 펼쳐지는 수업에 친구들의 참여율은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그림책, 영어놀이, 그림책-창작활동, 원예-퍼머컬처(Permaculture), 우쿨렐레 프로그램을 학기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움을 친구들이 좋아해 주었고, 무엇보다 일회성 프로그램에서 벗어난 16강의 연속적인 흐름의 깊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친구들과의 신뢰, 관계성이 돈독해짐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진행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는 달리 휴과 함께 친구하며 텃밭을 가꾸고, 음악과 책, 그리고 놀이 활동으로 편안하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환경이 아침과 잘 어우러졌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과 더불어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방과후학교' 사업을 다년간 진행하며 느낀 점은,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인 마을에서 이루어진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거대 담론을 넘어 마을에서, 작은 단위의 공동체에서만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응원과 환대, 서로를 지켜주는 단단함을 마을-학교 안에서 충분히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찾아가는 마을방과후학교는 수업의 영역보다는 돌봄과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마을도서관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 학교 안에서 잘 뿌리내리고 학교에서 마을로 확장되어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나답게' '서로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책과 인문학, 자연환경이 내 삶과 연결되어 어우러지는 꿈을 실현하였습니다. 나눔, 어울림, 소박한 들썩임을 모토로 자람도서관만이 만들어내는 우리만의 문화를 재해석, 재창조해내어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속에서 스스로의 자발성이 동력이 되어 서로를 일으키는 힘이 내 안에서 뿔어져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늘봄학교 아침방과후학교는 16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1~2번의 체험 중심, 만들기 중심의 단발성 프로그램에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책과 원예, 영어놀이, 우쿨렐레, 뜨개질, 몸놀이, 미술심리 등 내 안의 이야기를 쌓고 정리하고 밖으로 표현하는 작업이 단기간의 수업에서 나누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늘봄학교의 긴 호흡이 서로의 생각을 쌓고 나누고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었고 함께 연결되는 힘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마다, 마을마다, 학교마다 가지는 장점과
자연, 인문환경들을 씨실, 날실 한 올 한 올 엮어 아침을 환대와 따뜻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찾아가는 마을방과후학교'

우리 아이들의 아침이 늘 행복할 수 있기를
자람도서관과 갑룡초등학교는 마을에서 늘 함께 자랍니다!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서로를 돌보는 마을공동체 늘봄, 마주봄, 다시봄

내동작은나무마을어린이도서관 관장 | 정연우



대전광역시 내동에 위치한 마을어린이도서관 '작은나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2008년에 개관하여 2번의 이사를 거쳐 2016년 9월 13일 신성아파트 앞으로 등지를 틀게 되었다. 이곳 내동작은나무마을어린이도서관은 변동과 내동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2개의 초등학교와 4개의 중학교, 2개의 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조성되었으며 초대관장이셨던 최지연관장님 외 네 분의 전임관장님들과 운영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여러 후원자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님들의 지원으로 지금 15년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마을로 찾아가는 평생교육현장으로서 시민대학과 시민공유공간조성지원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들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복합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작은나무는 도서관이라는 개념을 넘어 이제는 건물 옥상 텃밭상자에 가꾸놓은 농작물부터 3층 시민공유공간 아지트, 지역주민들의 동아리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실과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이 있는 2층, 마을어린이도서관답게 '정숙'보다는 '배려' 속에 자기조절과 창의 등 '자유지'를 배워가는 유아동 미끄럼틀이 있는 1층 열람실, 아이들의 실내운동장이 된 지하 시청각실까지..

마을도서관치고는 꽤나 크고 잘 갖춰진 도서관 규모에 놀라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사업과 지역과의 연대와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원활동에 다시 한 번 눈이 동그래지며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에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계신다. 특히 방과 후 돌봄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취지로 마을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는 <마을로 찾아가는 초등돌봄교실> 은 "학교와 마을에서 돌보는 우리 모두의 아이" 라는 슬로건 아래 "초등학교는 모든 교육의 뿌리이다"라는 협약식 때 전하신 설동호 교육감님의 말씀에서 마을에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될 수 있도록 돌봐야 하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원활동을 하고 있다.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집 가까운 곳이라는 마을이 주는 안정감과 할머니, 이모, 삼촌, 이웃 아줌마 등 아이들에게 건네는 어른들의 따뜻한 눈길이 아이들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으로 돌보는 정서적 지원까지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한 아이를 키우는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마을의 가치가 실현되어가는 현장이다.



이처럼 아이들에게 책 읽는 문화적 배경이 되어주는 내동작은나눔마을어린이도서관에서의 돌봄은 다른 기관과는 좀 특별함이 있다. 마을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문화교류 행사에서의 외국친구들, 3층을 이용하는 학교박청소년들의 관심과 개인의 취미를 넘어서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공동체의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평균 60세가 넘는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세대가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세대 간의 소통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그것이다.

이 특별한 돌봄은 내동마을어린이도서관에서 들꽃마루 공방으로 취미활동을 이어가시던 어르신들의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단순 바느질을 이용한 취미활동이 뭐가 있을까?'에서 '인형을 만들어서 인형극공연을 해보면 어떨까?'로 확장되었다. 마을을 이롭게 동네를 풍요롭게~ 인형극단 <마이동풍> 동아리와 평생학습진흥원 동아리 <쿠키스토리>의 협업으로 이루어낸 의미있는 시간은 함께 마음이 모아져 공동체를 확장시키는 계기였다. 물론 그 대상은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시간이었지만 빼꼼히 내다본 아이들을 위해 또 다른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아이들을 위해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는 형형색색의 표정쿠키를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같은 밀가루 반죽이지만 경험해 보지 않았던 색 반죽과 고소한 버터내음을 맡으며 아이들은 행복을 채워나간다.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주민 누구든지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곳.

내동작은나무마을어린이도서관에서의 돌봄교실은 이렇게 확장성을 갖는 곳이다.

특히 시민공유공간 3층 아지트에서는 학교 밖에서 자기를 찾으려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라탕을 한 냄비 끓여내고 연신 “너무 맛있다”를 외치며 두 세 그릇 줄을 서서 먹는 아이들과 언니들이 준비해준 재료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아이들에게서 돌봄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간다. 뒷세대가 아랫세대를 위하고 또 배운 만큼 나눔을 실천하는 곳, 바로 내동작은나무마을어린이도서관이다.



역시 세상살이는 ‘혼자’가 아닌 ‘우리’여야 한다. 뒷세대와 아랫세대가 이어지는 것만이 아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내동작은나무마을어린이도서관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돌봄아동이 존재한다.

필리핀 이민 생활 20년을 마치고 돌아온 어학원 케빈원장님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아름답고 사람 살만하게 만드는 일에 일조할까?’ 나름 고민하고 이런저런 엉뚱한 궁리로 살아오신 분으로 우리 마을어린이도서관과의 귀한 인연이 되어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국제문화교류의 장으로 <어울령~ 더울령~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진 날, 서로 맞절로 인사를 나누면서 두 손 모아 공손한 마음으로 새해의 의미를 되살려보는 시간. 비석치기,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공기놀이, 윷놀이, 고무줄놀이까지. 낯선 외국인들과의 놀이는 곧 밥이 된다.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아이들은 놀기 위해 태어난다고 했던가?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놀이가 곧 밥인 아이들은 한바탕 놀고 난 후 2층으로 노랗고 하얀 고명 위에 왕만두도 풍덩! 외국친구들과 청소년인 큰언니들과 모두 함께 먹는 떡국 한 그릇이 배만 부르는 것이 아닌 마음까지 불렀기를 기대하며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들을 지켜보는 학부모들은 찬물 뒷설거지로 뒤늦은 마무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지원해주셨었다.



놀이를 만들어 내고 서로 간의 경쟁이 아닌 다함께 승리하는 기쁨을 느끼는 시간.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닌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고 맞춰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시간으로 이마에 묻어나는 땀방울이 아이들에게는 어린시절 짙 행복으로 추억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크리스마스 행사는 또 어떤가? 눈이 펄펄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혼자여서 외롭거나 슬퍼하는 친구 없기! 꼭 그날은 그런 날이었다. 원어린이 읽어주는 영어동화책 읽기를 시작으로 지하에서는 조금 큰 언니들의 링바닥 피구놀이를 펼쩍펼쩍 뽀뽀로 죽다 살아난 날(?). 캐롤 배우는 시간, 찌지직... 음향시설이 받쳐주지 못해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함께 부르는 케롤송과 막간을 이용한 K-POP 댄스는 아이들의 눈이 동그해지는 의미있는 시간. 음악에 맞추어 현장에서 즉시 추는 심오한 댄스(?)와 그림 솜씨 자랑 왱자 지결.. 북적북적.. 한바탕 대소동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사람 사는 맛이 나는 현장이다. 돌봄아이들 뿐 만이 아니라 같은 반 친구들까지 초대되어 함께 어울려 지냈던 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그 소임을 다했던 내동작은나무마을어린이도서관의 하루 행사가 끝나고 나면 간단한 뒷풀이로 준비해온 음식은 타문화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함께 나누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재미와 이야깃거리가 된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했던가? 환하게 핀 꽃들을 심으면서 15주년을 맞는 내동작은나무마을어린이도서관을 축하해주는 시간으로 옥상 꽃 가꾸기! 특별한 날이니만큼 남다른 의미가 있다.

데이지, 마가렛, 베고니아, 꽃잔디, 메리골드 등 꽃 이름만 들어도 사랑살랑 꽃향기가 풍기는 옥상에서 각자가 마음에 드는 꽃을 조심조심 옮겨심고 함께 가꾸고 함께 관심 갖기도 했다. 내가 심은 꽃 이름이 무엇인지는 잊지 않기로 꼭! 꼭! 약속도 하고, 소중한 흙에 대한 가치와 함께 나눔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 옥상 한 켠 자리 잡은 화분과 채소들을 보면서 따뜻한 햇살만큼이나 관심으로 더욱 활짝 피우게 될 꽃들~ 한 친구가 “어! 이 꽃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꽃 이름 뭐예요?”하고 묻자 자원봉사선생님의 “백 원이야”개그로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되었다.



돌봄사업이 꾸준히 이어지다보니 작년에 심었던 블루베리와 차를 타고 이동하여 단체견학으로만 볼 수 있던 딸기가 잎새 뒤로 몸을 숨긴 채 자태를 드러내고, 함께 심었던 상추, 고추, 호박, 작두콩, 피망 등이 대롱대롱 얼굴을 내밀어 친구들을 반긴다. ‘곡식과 채소는 농부의 발걸음으로 크다’는 말처럼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나를 관리하는 아이들이다. 마을어린이도서관 옥상에서 아이들과 함께 소소한 기쁨을 맛보는 시간까지..

초록이 주는 싱그러움이 수국만큼 넉넉하거나 껍찬 풍요로움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도 무더운 여름날 마을어린이도서관 옥상 텃밭에서 까맣게 열매 맺은 블루베리를 따고 맛을 보고 옥상에서 바라본 동네 풍경들이 그 하루를 추억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되어 옥상에서 올라다본 파란 하늘과 물뿌리개에서 흩뿌려진 물줄기, 방울방울 맺혀진 블루베리의 풋풋하고 달콤한 향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란다.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아이를 돌본다는 것, 돌봄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교육정책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지원받은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또한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배워나가는 학습자 중심의 시스템과 지역사회 자원들의 연계망이 아이들을, 이 마을을 살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희노애락을 함께 공감하는 지역 사람들에 의해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해가려는 움직임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로 사회적인 고립감과 정서적 결핍감으로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흘려보내게 되었고 그사이 마을의 사랑방이자 문화복합커뮤니티로서 마을돌봄공간의 기능을 잠시 미뤄둔 채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

그동안 한쪽으로 눌러 놓았던 관심과 애정이 솜사탕처럼 부풀어 오르기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바쁜 일상 속 책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마을어린이도서관을 사랑하고 사람을 마을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꿈꾸는 내동작은나무마을어린이도서관 지킴이들과 자원봉사자님들의 수고로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란다.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 일상이 중심이고 지역주민 중심이 되는 건강한 유기체로서의 마을로 찾아가는 돌봄 >

돌봄교실 자원봉사자 선생님의 말씀과 돌봄교실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님의 말씀을 실어본다.

“그림책이 있고 놀이공간은 있지만 아이들이 없다면 마을어린이도서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도서관 일반 이용자 수도 제한되어 모든 활동이 위축되어도 내동작나무마을어린이도서관 돌봄교실은 쉬지 않고 운영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친구들과 어떻게 마음을 열어야 하는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내동작나무마을어린이도서관 돌봄교실에서는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그림책을 읽고 서로의 입장을 바꿔 이야기 나누며 교우관계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돌봄교실 자원봉사자 김세연 선생님 -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작년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이 격주로 등교하는 바람에 집에 오래 머물면서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내동작은나무마을어린이도서관 돌봄교실은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고 친구들 만나기도 힘든데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친한 친구들과 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특별활동도 진행되어 아이들에게 더할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다. 또다시 돌봄이 시작되어 도서관 선생님들과도 정이 들었고 아이들을 친이모나 삼촌에게 돌봐달라고 마음 편히 부탁하는 기분이 들 정도다. 돌봄친구들도 더 많아지고 친해져서 같이 어울려 노느라 저녁 시간이 되어도 집에 오지 않으려는 아이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인다.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돌봄을 시작해주신 내동작은나무마을 어린이도서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코로나19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진뿐 아니라 내동작은나무마을어린이도서관 관장님과 자원봉사자 선생님들도 진정한 영웅입니다.”

- 돌봄어린이 비손이 아빠 -

“처음 내동작은나무마을어린이도서관에 방문했을 때 기존 도서관 이미지와 사뭇 달랐다. 엄숙한 분위기에 떠들면 눈치 보던 곳이 아닌 어린이들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책을 읽고 상호작용도 하는 곳이고, 남녀노소 나이 불문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원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중 우리 딸은 돌봄교실이 처음 생긴 후부터 현재까지 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있다. 우선 노는 환경이 도서관이다보니 책에 대한 폭도 넓어지고 흥미도 생겼다. 읽는 것에서 끝나서 고민이었는데 생각을 끄집어내 주는 일을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니 좋았다. 코로나19로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교류를 못해 사회성이 떨어질까봐 걱정이었는데 방역수칙을 지키며 적정인원에서 친구, 언니, 동생들과도 어울려 놀며 사회성을 기를 기회가 생겼다. 방과후 돌봄교실에서는 하루 한 프로그램씩 다양하게 운영되는데 생각키우기뿐만 아니라 신체활동과 정서활동도 많이 신경 써 주신다. 강당에선 옛날 동네에서 놀던 전래놀이 등을 하며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옥상에선 자기 텃밭에 식물을 키우며 본인이 수확해 온 상추가 맛있다고 처음 먹기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같이 돌봐주시니 엄마의 개인 불일도 편하게 볼 수 있고 힐링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우리 동네에 이런 마을어린이도서관이 있고 알게 된 게 다행이고 감사하다. 선생님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동작은나무어린이도서관 파이팅!!!

- 돌봄어린이 고은이 엄마 -

책과 사람, 책과 자연, 사람과 사람을 잇는...

서로를 돌보는 마을공동체 늘봄, 마주봄, 다시봄

이곳은 내동작은나무마을어린이도서관입니다.



학교 안팎을 넘나들며 배우는 월문형 미래학교를 꿈꾸다!

- 남양주월문초등학교 늘봄학교(온누리학교) 이야기

남양주월문초등학교 교장 | 박 준 표



❖ 1. 늘봄학교가 남양주월문초에서 온누리학교로 태어나다

남양주월문초등학교는 그동안 오후 3시까지 전교생을 책임지는 공교육으로 선진국형 학교 모델을 창조하고, 모든 학생들에 대한 교육돌봄으로 교육복지실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 본교는 전교생 98명의 농촌지역 작은 학교인데, 작은학교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각과 활성화 방안 마련 또한 필요했다. 또한 마을교육자원의 교육적 활용과 개방, 그리고 협력 문화 조성으로 학교 안팎에서 배우며 성장하는 미래형 교육 추진을 위해 고민하였다. 이런 많은 생각들을 어떻게 단위학교에서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을 만났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은 남양주월문초등학교의 여러 생각들을 만나 '온누리학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 2. 새로운 도전! 늘봄학교(온누리학교)를 위한 생각 모으기

온누리학교 추진을 위해 오랜 시간동안 교육공동체의 생각을 모으고 조정하고 준비해가는 과정이 필요했다. 1학기 운영을 한 후에 2학기 운영을 위한 공동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 온누리학교 공약(2022.3.1.) 정책 구안
- ▶ 방과후학교 운영 방법 개선을 위한 학년방과후 운영(2022.4.~12.)
- ▶ 온누리학교 정책 실현성 검토를 위한 부장 및 방과후 담당자 협의(22.11.11.)
- ▶ 새로운 학교 운영 토대 마련을 위한 월문초 교사 대상 정책 설명회(22.11.14.)
- ▶ 학부모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부모대의원회 정책 협의(22.11.15.)
- ▶ 온누리학교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관리자, 행정실장 협의(22.11.16.)
- ▶ 프로그램 확정을 위한 각 학년 학부모 대표자 협의회 개최(22.11.22.)
- ▶ 2023학년도 단위학교 운영계획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2.12.9.)
- ▶ 전체 학부모 정책 설명회(22.12.)
- ▶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22.11.~12.)
- ▶ 프로그램 운영 강사 모집(22.11.~23.2.)
- ▶ 늘봄학교 선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3.2.20.)
- ▶ 늘봄학교(온누리학교) 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제출(23.2.22.)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 ▶ 늘봄학교(온누리학교) 운영(2023.3.~현재)
- ▶ 늘봄학교(온누리학교) 학부모 수업공개, 학부모, 학생, 교사 의견 청취(2023.6.12.~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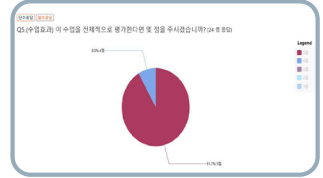
학부모대의원회 정책공감



학부모 정책설명회



늘봄학교 학부모공개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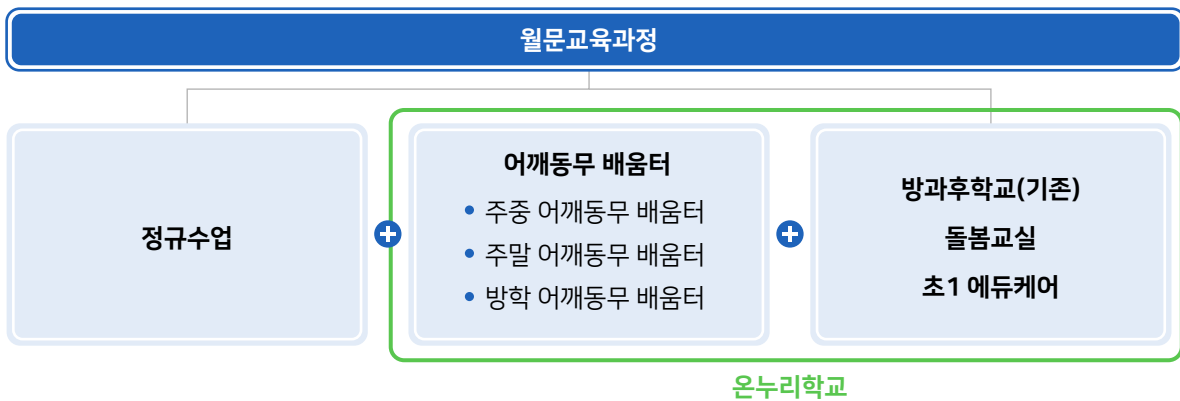
학부모만족도조사

3. 끄덕끄덕~ 늘봄학교(온누리학교)

가. 온누리학교 이해하기

온누리학교는 교육부 늘봄학교와 연계 운영하는 남양주월문초등학교의 자체 교육활동으로, 학교 안팎을 넘나들며 배우는 월문형 미래교육을 꿈꾸는 본교 정규수업 후(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학생 교육활동이다. 온누리학교는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어깨동무 배움터와 기존의 돌봄교실, 방과후학교를 모두 담고 있다. 어깨동무 배움터는 전교생이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머물며 고정된 교육과정, 제한된 교육공간, 분절적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이 성장 동기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시 이후에는 학생들의 선택과 희망에 따라 돌봄교실과 기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다.

나. 학교교육과정과 늘봄학교(온누리학교)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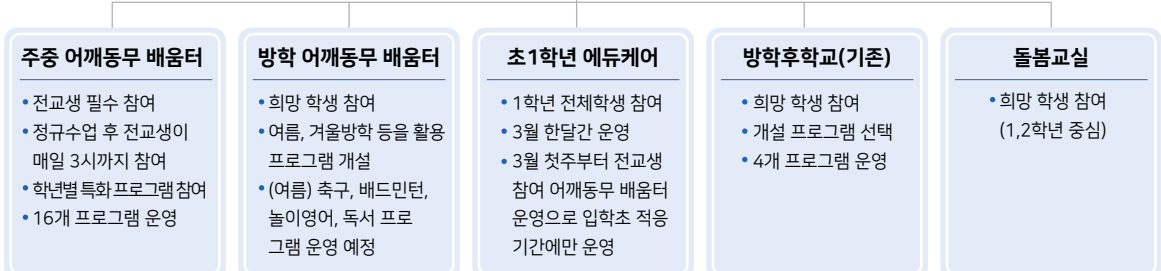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다. 운영 시기에 따른 늘봄학교(온누리학교)

학교 안팎을 넘나들며 배우는 월문형 미래학교 운영

남양주월문초 늘봄학교(온누리학교)



※ 주말 어깨동무 배움터는 중장기 계획으로 2023년도에는 실시하지 않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운영 예정

❖ 4. 들썩들썩~ 늘봄학교(온누리학교)

가. 학년별 세부 운영 시간(1학기 기준)

● 1학년, 2학년 어깨동무 배움터

	월	화	수	목	금	비고
1교시	정규수업 (4교시)	정규수업 (6교시)	정규수업 (4교시)	정규수업 (5교시)	정규수업 (4교시)	정규수업 (23시간)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12:10	~12:10	~12:10	~13:50	~12:10	
6교시	어깨동무 배움터(2시간) 1학년 문학(옛이야기) 2학년 생태 13:10~14:30	~14:30	어깨동무 배움터(2시간) 1학년 생태 2학년 문학(세계명작) 13:10~14:30	어깨동무 배움터(2시간) 1학년 창의놀이 2학년 손공예놀이 14:00~14:40	어깨동무 배움터(2시간) 1학년 수공예 2학년 과학탐구 13:10~14:30	어깨동무 배움터 (7시간)
6교시 이후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하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하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하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하교	돌봄교실/ 하교	학생 선택에 따라 운영



1학년 문학(옛이야기)



1학년 생태



1학년 창의놀이



1학년 수공예



2학년 생태



2학년 문학(세계명작)



2학년 손공예놀이



2학년 과학탐구

전문가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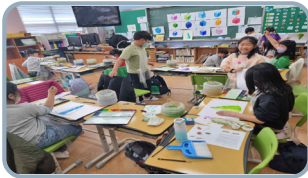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 3학년, 4학년 어깨동무 배움터

	월	화	수	목	금	비고
1교시	정규수업 (6교시)	정규수업 (6교시)	정규수업 (4교시)	정규수업 (6교시)	정규수업 (4교시)	정규수업 (26시간)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14:30	~14:30	어깨동무 배움터(2시간) 3학년 수채화 4학년 도예 13:10~14:30	~14:30	어깨동무 배움터(2시간) 3학년 마을수업 4학년 풍물 13:10~14:30	어깨동무 배움터 (4시간)
6교시 이후 -	방과후학교/ 하교	방과후학교/ 하교	방과후학교/ 하교	방과후학교/ 하교	하교	학생 선택에 따라 운영



↑ 3학년 수채화



↑ 3학년 마을수업



↑ 4학년 도예



↑ 4학년 풍물

● 5학년, 6학년 어깨동무 배움터

	월	화	수	목	금	비고
1교시	정규수업 (6교시)	정규수업 (6교시)	정규수업 (5교시)	정규수업 (6교시)	정규수업 (6교시)	정규수업 (29시간)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14:30	~14:30	어깨동무 배움터(2시간) 5학년 목공 6학년 컴퓨터 14:00~15:20	~14:30	~14:30	어깨동무 배움터(4시간)
6교시 이후 -	방과후학교/ 하교	방과후학교/ 하교	방과후학교/ 하교	방과후학교/ 하교	어깨동무 배움터(2시간) 5학년 뮤지컬(연극) 6학년 난타 14:50~16:10	학생 선택에 따라 운영



↑ 5학년 목공



↑ 5학년 뮤지컬(연극)



↑ 6학년 컴퓨터



↑ 6학년 난타

전문가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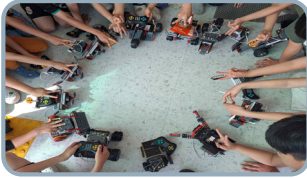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기존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운영 이전부터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을 4개 운영하고 있다. 3시부터 학생 선택에 의해 로봇교실, 바이올린, 피아노, 방송댄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로봇교실



↑ 바이올린



↑ 피아노



↑ 방송댄스

나. 더 행복한 학교를 위해 내딛는 한걸음

1학기 바쁘게 달려온 늘봄학교(온누리학교)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6월에는 일주일간 20개의 모든 프로그램 대상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였고, 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었다. 같은 기간 지역의 교감선생님들이 본교에 방문해 늘봄학교의 정책 설명, 본교 프로그램 운영 참관을 하기도 하였다. 전체 교사 회의를 진행하며 1학기 운영 내용을 살펴보고 2학기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다. 또한 7월에는 늘봄학교와 기존 방과후학교 강사들과 함께 1학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2학기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학생들의 활동 결과는 10월에 학부모 초청 전시회와 월문 달빛축제로 공유할 예정이다. 공개수업 의견정취, 만족도 조사, 교사 회의 등을 통해 프로그램 질적 확보, 운영 방법의 개선, 학생 지도 및 지원 방안 모색, 2학기 운영 보충 등의 방안을 모색 하였다.

❖ 5. 좌충우돌~ 늘봄학교(온누리학교)

전교생이 3시까지 학교에 머물며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운영이 쉽지 않다. 교육활동 운영 시간 확보, 공간 마련, 강사 섭외,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의 간식 제공, 프로그램 질적 확보까지 모든 것이 그야말로 좌충우돌 성장기가 아닐 수 없다.

가. 정규교육과정과 늘봄학교(온누리학교)의 균형 맞추기

전교생이 3시까지 학교에 머물며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교사 협의를 거쳐 우선 정규수업시간을 조정하였다. 학교 정규수업의 행사, 현장체험학습 등의 경우 학교 도착하는 시간이나 활동을 마치는 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전교생 모두 화요일을 6교시로 편성하였다. 화요일은 학교 전체 행사, 현장체험학습 등이 이루어지고 온누리학교의 어깨동무 배움터를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정규교육과정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생태, 목공, 도예, 마을수업 등 문예체 중심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학생 성장의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나. 모든 곳이 배움터

본교는 교실 크기가 보통 학교 일반교실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 많지 않은 학생 수임에도 불구하고 교실에서 학생들이 맘껏 활동할 공간이 부족하다. 절대적인 학습공간 및 시설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 전체를 둘러보아도 과학실과 도서관, 작은 강당이 전부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20개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16개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등 총 20개의 프로그램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만만치 않다.

부족한 공간 해결을 위해 위해 학년교실(일반교실), 도서관, 과학실, 운동장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희대를 리모델링하여 늘봄학교(온누리학교)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학교 공간뿐만 아니라 학교 밖 갈미봉(학교 뒤의 동산), 하천, 지역의 공공기관, 유적지, 지역 체육문화시설 등 마을 전체를 배움터로 활용하고 있다.

다. 월이문이와 함께하실 선생님을 구합니다

20개나 되는 많은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강사 모집을 서둘러야했다. 본교는 구도심의 외곽에 있는 학교로 해마다 강사를 구하기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뿐 아니라 16개의 늘봄학교(온누리학교)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 먼저 강사를 구해야만 했다. 강사 모집은 5차까지 진행되었고, 지난 겨울방학 긴 시간은 강사 면접을 보고 계약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던 기억이 있다. 모든 이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2월말까지 20개의 프로그램 강사를 모두 섭외할 수 있었다.

현재 본교의 강사는 일반 강사 외에도 학부모, 지역사회 예술가들이 도움을 주어 함께 운영하고 있다.

라. 배우느라 수고하고 배고픈 월이문이야~ 다 내게로 오라!

본교의 늘봄학교(온누리학교) 시간표를 보면 전교생이 3시까지 학교에 머물며 늘봄학교(온누리학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학생 개인 선택에 따라 기존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학교 등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배가 고팠고, 학부모님들은 학생 간식을 가정에서 개별로 준비하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었다.

작년 학교협동조합 운영준비를 하고 올해부터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부모회와 학교협동조합의 도움으로 간식 개별 준비가 어려운 희망 학생에 대해 전교생 오후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협동조합 간식도움



오후 간식 준비



오후 간식 봉사



오후 간식 시간

❖ 6. 우리의 열정은 방학에도 쭈욱~ 계속된다

7월이면 남양주월문초는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방학이면 홀로 있어야 할 아이들의 시간이 길어지게 마련이고, 부모님들의 고민 또한 깊어진다.

본교에서는 이번 여름방학에 방학 어깨동무 배움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몇몇 담임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교과보충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교장선생님과 학교협동조합이 함께 진행하는 토사모(토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름 캠프도 진행할 예정이다. 무더운 여름 더위도 남양주월문초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이길 수는 없는가보다.

	배드민턴캠프	축구캠프	영어캠프	독서캠프
운영기간	7.24(월)~28(금) 09:00~11:20	7.24(월)~28(금) 08:30~10:50	8.7(월)~11(금) 09:00~10:30	8.7(월)~10(목) 학년군별 캠프운영
운영장소	외부 실내배드민턴장	외부 종합운동장	과학실	도서관
대상	1-6학년	1-6학년	3-6학년	1-6학년
프로그램 내용	배드민턴 기본기술 익히기	축구 기본기술 익히기	영어놀이와 연극	사서선생님과 책을 읽고 독후활동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 7. 가고 싶은 학교, 오래 머물고 싶은 학교를 꿈꾸며

교육, 학교 혼자서는 더 이상 안된다. 월문형 커뮤니티 스쿨을 꿈꾼다. 교사 중심의 정규 교육과정과 지역사회(학부모) 중심의 방과후 공동체 교육과정이 함께 가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정규교육과정이 '학교 안 교과 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공동체 교육 과정은 '비교과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에 중심을 두고 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중심에 늘봄학교가 있다. 더 나아가 우리 학교 늘봄학교는 정규 교육 과정이 멈춘 방학이나 주말에도 학생 선택을 바탕으로 학교 안팎을 넘나들며 운영되고 있다.

작은 학교라서 그런지 학생 맞춤 돌봄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맞춤 돌봄은 맞춤형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우리 학교 혼자서는 아이들 각자에 맞는 맞춤형 돌봄과 교육과정을 해 낼 수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될 것이다. 이벤트성 행사처럼 그럴듯하게 시작하여 반짝 성과를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사회(학부모) 공동체의 지지와 협력이 없이 지속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교육적인 곳이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교육 문화의 중심 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다. 학생들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오래도록 머물러도 안전한 장소로서 독립성을 인정받고 보장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독립이 지나쳐 '고립'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학교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 교육전문가로서 교사의 배움과 성장, 지역사회(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참여하여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 학교. 우리 학교가 나아가야 할 미래이다.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지역을 살리는 교육,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곡성군미래교육재단 팀장 | 김 현 경



대한민국 전체가 '지방소멸'로 화두다. 행정안전부에서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 인구감소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2021년도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였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며 2022년부터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계획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1년도 발표 시 곡성군의 지방소멸지수가 0.189로 위기단계였다. 수치가 보여주는 위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체감도가 컸다.

곡성군의 인구 3만이 붕괴되었던 2018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다. 곡성군에서는 인구절벽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극복, 특히 학령기 인구 유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출산장려, 귀농귀촌, 청년에 대한 예산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좀 더 본질적인 문제해결 방식에 접근하고자 했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아이뿐 아니라 어른까지 전 군민이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갔다.

2018년 곡성군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 교육지원과 청소년 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를 결합한 미래교육팀을 신설하였고 교육 분야에 인력과 예산이 집중되며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에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의 상생을 위해 곡성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미래교육재단의 전신인 곡성미래협력센터를 개소하여 군청 공무원과 교육지원청 공무원이 한 공간에서 공동영역을 찾아 함께 일하며 협력의 기반을 쌓아갔다. 2020년 12월에는 지금의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을 출범시키며 민관학이 협업하며 곡성군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유아동 · 청소년 교육과 더불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까지 아우르며 지역교육 생태계의 초석을 다져가고 있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군청, 교육지원청과 독립된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와 지역, 사람과 자원을 연결하는 중간지원플랫폼이자 아이들성장에 필요한 직접 사업 수행까지 총괄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군청, 교육청, 청소년기관까지 다양한 배경의 24명의 구성원들이 5개 팀을 이뤄 한 조직 안에서 협력 공동망을 이루고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성을 살려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 장학사업, 마을교육과정 운영, 마을강사 양성, 지역의 생태환경을 교육으로 연계시킨 꿈놀자학교, 돌봄체계 구축, 청소년 예술교육, 진로진학, 4차 산업교육, 평생교육을 담당하며 지역 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은, 곡성군미래교육재단에서 지역과 함께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 **추진경위**

- ▶ 2018년 곡성군-교육지원청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18. 12. 21.)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18. 12. 27.)
- ▶ 2019년 곡성미래교육협력센터 임시기구 개소 및 운영('19. 3. ~ '20. 6.)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19. 12. 27.)
- ▶ 2020년 창립총회 및 재단 설립 허가('20. 5. 6. / '20. 6. 11.)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출범('20. 12. 15.)

❖ **곡성군미래교육재단 현황**

- ▶ 설립일 2020. 6. 19.
- ▶ 형태 비영리 재단법인, 공익법인(곡성군 출연기관)
- ▶ 설립목적 학교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곡성군과 교육지원청의 협력 속에 설립된 중간지원 플랫폼으로 유아교육부터 청소년교육, 평생교육까지 아이와 어른 모두가 성장해가는 **곡성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 ▶ 예산규모 약 70억(2023년 기준)
- ▶ 조직구성 5개 팀(행정운영팀, 혁신교육팀, 평생교육팀, 지역교육팀, 청소년지원팀)
- ▶ 인력구성 24명(군 파견 9명, 교육지원청 2명, 민간 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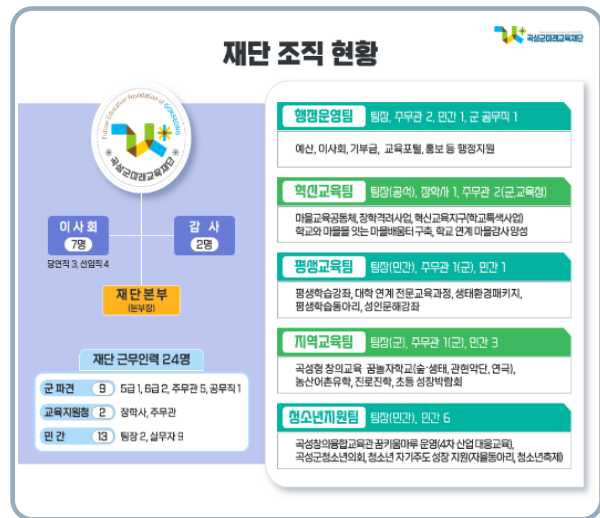


Vision 사람과 미래를 잇는 즐거운 교육도시

Mission 사람이 모이는 곡성의 행복한 성장

- 곡성이 추구하는 **미래**
협력있는 지속가능한 "지역성장"
- 곡성이 추구하는 **지향점**
배움이 일상화되는 학습사회 "사람의 성장"
- 곡성이 추구하는 **목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성장하는 "곡성형 교육생태계"

↑ 곡성군미래교육재단 비전 및 지향점



재단 조직 현황

- 이사회** 7명 (장영석 3, 신일익 4)
- 감사** 2명
- 재단 본부** (본부장)
- 재단 근무인력 24명**
 - 군 파견 9 (5급 1, 6급 2, 주무관 5, 공무원 1)
 - 교육지원청 2 (장학사, 주무관)
 - 민간 13 (팀장 2, 실무자 5)

행정운영팀	팀장, 주무관 2, 민간 1, 군 공무원 1
예산, 이사회, 기부금, 교육포털, 홍보 등 행정지원	
혁신교육팀	팀장(공역), 장학사 1, 주무관 2(군, 교육청)
미래교육공동체, 장학력리사업, 혁신교육지구(학교특색사업) 학교와 마을을 잇는 마을메달더 구축, 학교 연계 마을강사 양성	
평생교육팀	팀장(민간), 주무관 1(군), 민간 1
평생학습강좌, 대학 연계 전문교육과정, 생태환경매키지, 평생학습동아리, 성인문예강좌	
지역교육팀	팀장(군), 주무관 1(군), 민간 3
곡성형 창의교육 공동자학교(숲·생태, 관현악단, 연극), 농산어촌유학, 진로진학, 초중 성장박람회	
청소년지원팀	팀장(민간), 민간 6
곡성형인물림교육관 관키마을부 운영(4차 산업(대중교육), 곡성군청소년의회, 청소년 자기주도 성장 지원(자율동아리, 청소년주제)	

↑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조직현황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1. 온마을 함께 키움 교육돌봄 구축(1년차)

올해 신규 시책사업인 온마을 함께 키움 교육돌봄은 지역의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돌봄기관들을 한데 모아 곡성군의 돌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돌봄 수요를 파악해보고 돌봄기관별 프로그램 현황과 민관학 실무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곡성군에 맞는 중장기적 돌봄 체제 구축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관내 0세부터 12세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40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돌봄 실태현황을 파악했다. 7월 중에는 돌봄 관계자 네트워크와 함께 최종 보고회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곡성교육포털에 관내 돌봄기관이 담긴 온마을함께 키움 교육돌봄 지도를 개발하여 홍보하고, 실무자간 연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워크숍도 추진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따른 중장기적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곡성군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키우며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민관학 돌봄 네트워크가 함께 책임지는 곡성형 온마을 함께키움 돌봄 협업 체계를 강화해 갈 계획이다.

2. 숲에서 뛰놀며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곡성꿈놀자학교

곡성군은 70% 이상이 임야로 둘러싸인 청정하고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기후위기 시대 환경의 소중함과 숲에서 신나게 뛰놀며 생태감수성과 창의성, 모험심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학교 교과와 연계한 6가지의 숲 놀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에서 마을 전문가와 함께 숲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교 교과로 연계 할 수 있도록 교사-숲활동가-재단-교육지원청이 학년별 학급별 성취기준에 맞게 활동을 재구성하여 숲교육 책자를 만들었다. 곡성군의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숲교육을 희망하는 학급별 신청을 받아 전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들이 해를 거쳐 곡성형 창의교육으로 특화되며 현재까지 학생, 교사, 학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학교 밖 배움터로써 성장해 가고 있다.



곡성군 숲교육장 '제월섬'

• 관내 8개 초등학교 교과연계 숲체험 운영현황(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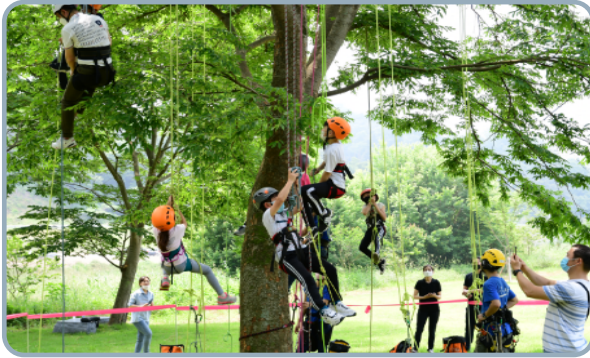
도깨비마을숲체험 (1~2학년)	트리클라이밍 (전학년)	밧줄놀이터 (3~4학년)	숲에서 길찾기 (5~6학년)	미술관 숲 놀자 (전학년)
636명(33회)	꿈놀자센터 316명(17회) 제월섬 435명(20회)	328명(20회)	290명(14회)	976명(56회)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제월섬 트리클라이밍



초등학교 교과연계 숲놀이 교육 웹포스터



좌) 제월섬 밧줄놀이터 / 우) 미술관놀이

3. 곡성군립 청소년 관현악단 곡성 꿈놀자 관현악단

곡성군미래교육재단에서는 음악에 관심있고 악기를 배우고 싶은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곡성군립 청소년 관현악단을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0년도 곡성군립 청소년 관현악단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총감독과 음악감독, 지휘자를 선발하며 지도진이 구성되었다. (참고로 총감독과 음악감독은 악기를 전공한 학교장이다.) 권역별 중학교에서 방과후 시간에 운영되던 악기 수업을 곡성군립으로 통합하였으며, 학교별 단원 모집과 악기파트 강사를 각각 선발하여 동일 선정곡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지휘자는 한 달에 한 번씩 권역별 학교를 순회하여 합주 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 전체 하모니를 맞추기 위해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단원 전체가 곡성읍에 위치한 체육관에서 모여 합주 연습을 한다.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올해 3년 차에 접어들며 아이들의 실력도 일취월장하여 올해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곡성군 대표로 무대에 서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지역 축제인 세계장미축제 개막식 공연에 서며 아이들에게 여러 큰 무대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9월 2일에는 섬진강기차마을 주무대에서 제2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있다.

참여 학생 수만 해도 200명이 되는 초특급 규모의 관현악단은 매년 2월 학교를 통해 단원 모집을 받고 있으며, 오디션 없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물론, 악기교육에 따른 비용도 전액 무료이다. 단원이 되면 신입생캠프와 여름·겨울방학 집중캠프, 정기연주회, 곡성군을 대표하는 무대에 참여하게 된다. 음악을 통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공동체성을 키워가는 관현악단원들의 미래의 모습이 기대된다.



곡성군립 청소년 관현악단 정기연주회

4. 삶의 예술적 가치를 심어주는 청소년 연극교육

다양한 예술영역의 재능과 끼가 있는 청소년들을 전문가와 연결하여 전문기술을 배우며 이야기를 창작해보고 직접 무대 공연까지 펼치는 연극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를 통해 초등과 중등을 대상으로 희망학생을 신청 받아 3개월 간의 비대면 수업과 대면 캠프를 통해 다른 학교 아이들과 방과후 시간에 만나 창의 예술 활동을 펼쳐나간다. 아이들이 프로덕션을 꾸려 학교를 순회하는 유랑극단이 되어보기도 하고, 해외 청소년들과 이중언어로 대화하며 예술로 교류하는 활동을 통해 세계를 만나보며 글로벌 인재로 꿈을 키우기도 한다. 내 자신을 마음껏 표출하고 저마다 다른 다양성을 발견하여 꿈을 찾아주는 연극 교육은 아이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예술적 가치관을 심어주리라 생각한다.

- 예술교육 분야: 영상, 극작, 움직임, 작곡, 무대설치
- 분야별 전문가와 학생들을 매칭하여 그룹별 방과후 시간 활용 교육. 연극 캠프 마지막날 공연 실시



청소년 예술 교육 연극 '미로찾기'

5. 학교 밖 울타리를 넘어 마을로 배움이 확장되는 마을배움터 구축

지역 곳곳에서 마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실천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 재단에서는 이러한 마을 교육들이 학교교육과 연계성을 강화해 갈 수 있도록 민관학 마을배움터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한데 엮어 마을배움터(약 40여개의 마을 교육체 협체)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그밖의, 어릴 적부터 살고 있는 자기 고향을 배우고 이해하며 애郷심을 키워가도록 학교-재단-마을전문가-교육지원청이 '알재곡 (알고보면 재미있는 곡성역사)'이라는 책자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알재곡은 초등 눈높이에서 곡성군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더욱 편리하고 재미있게 만나볼 수 있는 웹툰, 애니메이션, 영상툰, UCC까지 유튜브 콘텐츠로 다양 화해가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른들이 학교 밖 선생님이로 알려줄 수 있도록 마을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여 과정을 수료한 지역민에게 학교 수업으로 연계 강사비를 지원하며 교육이 일자리로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확대해가고 있다. 재단에서 매년 2~3월 각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마을배움터 설명회를 실시해 지역 교육자원들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곡 성을 잘 모르는 교사도 언젠는 지역사람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마을의 가치에 대한 배움을 알려 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마을배움터는 책자 외에도 곡성교육포털에서 곡성교육지도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구분	주요 활동 (예시)	연차	연수
대상 학년	1. 도개비마을 여행 (가정) : 마을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이해하고, 마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마을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활동	1차시	1. 1~2월
연학년	2. 도개비마을 여행 (가정) : 마을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이해하고, 마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마을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활동	2차시	3. 1~2월
	3. 도개비마을 여행 (가정) : 마을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이해하고, 마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마을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활동	3차시	4. 1~2월
연학년	4. 도개비마을 여행 (가정) : 마을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이해하고, 마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마을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활동	4차시	5. 1~2월
연학년	5. 도개비마을 여행 (가정) : 마을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이해하고, 마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마을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활동	5차시	6. 1~2월

↑ 마을배움터 책자(약 40여개의 마을 체험처가 담긴 마을교육과정 책자)



↑ 알재곡 웹툰(재단 홈페이지/ 유튜브)



↑ 알재곡 마을역사 강사 현장 탐방



↑ 알재곡 마을역사 강사 양성과정



↑ 민관학 마을배움터 협의회

6. 청소년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여 도전해보는 자율동아리 꿈키움학교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도전과 실패 그리고 성취의 경험을 쌓아가도록 꿈키움학교 자기주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꿈키움학교는 곡성군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4명 이상~10명 이하의 동아리를 구성하여 주제를 설정하고 활동 내용에 대해 1차 서류심사, 2차 PPT심사를 거쳐 선정된 동아리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방법은 총 3가지로, ① 연중 15회 이상 주기적으로 활동하는 연간운영팀, ②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지원하고 있는 물품지원팀, ③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진로나 역사 탐방 체험을 원하는 프로젝트팀까지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다양한 형태로 자기주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에게 보편적 기회를 고르게 줄 수 있도록 큰 결격사유가 없는 전원 지원하고 있으며, 교사나 청소년지도사 등 지역 멘토를 지정하여 연결시켜주고 있다. 한 해동안 이루어진 동아리 활동 결과는 매년 11월에 열리는 청소년축제 'HITEEN-FESTIVAL'을 통해 동아리부스 운영 및 재능경연대회를 통해 공유하고 있어 곡성군의 모든 청소년들과 활동 내용을 함께 나누며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 청소년 자기주도활동사업 통합발대식



↑ 꿈키움학교 동아리 활동(바리스타)



↑ 꿈키움학교 동아리 활동(좌 제과제빵 / 우 댄스동아리)

7.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곡성군의 마을학교들

곡성군미래교육재단에서는 지역이 함께 키우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으로 매년 12월 마을학교 공모를 통해 지역 아이들의 성장을 돕기위해 다양한 마을교육활동을 하는 공동체를 선발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곡성군에 12개의 마을학교가 활동하고 있으며, 마을별 특색있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매월 1회 중심 마을학교에 자발적으로 모여 마을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여기에 재단과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며, 마을학교 강사 역량 강화, 학교와 마을학교의 연계성 강화, 마을학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지역의 든든한 협력자가 되어주고 있다.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 곡성군 마을학교 프로그램

순	마을학교명	대표	주요교육활동
1	뚝방 마을학교	임*자	예술 프로그램운영, 홈카페, 생활요리, 가족프로그램, 캠프 및 영화제 운영, 마을축제 개최
2	길작은 마을학교	김*자	시스토리텔링과 전통놀이, 책놀이, 악기야놀자, 여름캠프, 김장체험 및 나눔, 작은음악회
3	(사)섬진강도깨비 마을학교	김*범	사라져가는 우리얼 도깨비를 찾아라, 숲체험교육-숲이랑 놀자
4	수정마을학교	오*현	로봇교실, 이수정역사문화연구회, 생태텃밭, 영어교실, 수어교실, 블루베리 체험, 스마트팜
5	마을학교 동네북	김*록	마을지도 만들기, 예술 · 마을유산교육
6	신난다 마을학교	김*란	아이들과 함께하는 정서프로그램, 특강, 창의보드게임대회, 버스킹, 학교 및 마을로 찾아가는 보드와의 만남
7	구름다리 마을학교	하*희	엄마밥상, 독서활동, 예능활동, 마을 토크보기, 문화체험
8	곡성평화 마을학교	최*철	꼬마농부활동, 효도밥상, 토탈공예, 캘리그래피, 제과제빵, DIY만들기, 역사탐방, 수군재건로 탐방, 신승경 · 유평로 역사 기행
9	죽곡함께 마을학교	박*숙	학교생태 텃밭정원, 그릇살림 배움터, 숲놀이터, 마을공동체 텃밭, 달려라 손큰부엌
10	곡성안개 마을학교	정*근	습지소풍, 동네장독대, 생활의발견, 동네빵집, 부시크래프트
11	항꾸네 마을학교	문*규	학교생태텃밭정원 교육 생태 텃밭 전환수업(초, 중, 고)
12	심청골짜나라 마을학교	강*구	공방 진로탐색 프로그램, 마을가구기, 로드스콜라, 도전체험프로그램, 지역문화 탐방, 수군재건로 탐방

8. 4차산업시대 미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곡성꿈키움마루

곡성꿈키움마루는 청소년들의 4차 산업 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육시설로 재단 청소년지원팀의 4차 산업 강사들이 직접 관내 중 · 고등학교로 가서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미래 산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곡성군의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교육 또는 방과후 시간에 코딩, 로봇, AI, 스마트팜 등 다양한 산업기술을 연중 37차시에 달하는 수업을 받고 있으며, 이 점은 아이들 수가 많지 않기에 가능한 곡성교육의 최대 강점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고교학점제로 인한 전문 교육영역의 고등학교 수업 요구 증가에 따라 강사 수급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의 학부모,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Smarter Class 강사를 직접 양성하여 꾸준한 강사교육 운영과 특별연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현재 6명의 강사풀이 구성되어 보조강사와 주강사로 활동하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다.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 곡성창의융합교육관 꿈키움마루(2021. 8월 개관)

- 곡성군의 초·중·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4차 산업시대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 곡성군과 전라남도교육청이 조성. 재단(청소년지원팀)에서 위탁 운영
 -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전문동아리 학교 지원, COS자격증 취득과정, 주말방학캠프, SMARTER CLASS 지역강사 양성
 - 교육영역 : VR·AR, 인공지능(AI로봇, AI 머신러닝), 로봇(햄스터봇, 스피로, 드론), 스마트팜, FLL 대회 준비

곡성꿈키움마루, 창의융합교육관 운영

관내 학교 교육기관 연계

- **학교 연계**
 - 자유학년제 수업
 - 동아리 연계
 - 관내 AI선도학교 MOU
- **청소년 기관 연계**
 - 방과후아카데미 연계
 - 캠프 및 체험 프로그램

창의융합 프로그램 개발

- **교육 커리큘럼 구축**
 - 기초 자유학년제 PG
 - 코딩 기반 심화 과정
- **체험 프로그램**
 - 꿈키움마루 고유 PG
 - 4차 산업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프로그램 기획

꿈키움마루 운영 지속 가능성

- **지역 연계**
 - 지역 강사 양성
 - 지역 기관 연계
- **문화적 플랫폼 구축**
 - 캠프 및 페스티벌 개최
 - 주말 PG 운영

• 관내 중·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연계 창의융합교육 운영현황(2022)

구분	대상	차시	내용	연참여인원
중학교 자유학년제 창의융합 전수교육	관내 중학교 1학년 전체 (곡성·석곡·옥과중) (156명)	각 학교당 34시수 / 학기당 17차시	· 4차 산업 전반 기초 교육 - 스크래치를 기반으로 한 기초 블록 코딩 - 토크카드 : 3D 모델링 - 코스페이스스 : AR, VR 공간 구현	4,224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창의융합	석곡·옥과 방과후아카데미 중학교 2,3학년 (30명)	연간 24차시 / 학기당 12차시	· AI 및 코딩 드론을 활용한 교육	720
고등학교 정보수업 연계	옥과·한울고 1학년 전수 (94명)	10차시 / 학기당 12차시	· AI선도학교, 교육 커리큘럼 구성 · AI 로봇 활용 및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	2,061
중학교 정보수업 연계	곡성중학교 2학년 전수 (100명)	10차시 / 학기당 4차시	· 중학교 정보 수업 연계 교육 · 1학기 전수 교육을 기반으로 한 심화 코딩 영역	800

• 중·고등학생 디지털 전문분야 코딩, 로봇, AI 전문동아리 지원

구분	대상	차시	내용	연참여인원
중학교 방과후 수업 연계	곡성중학교 2,3학년 (12명)	40차시 / 학기당 14차시	· 로봇을 활용한 조립 및 심화 코딩 교육	168
고등학교 동아리 연계	곡성옥과고 코딩 동아리	60차시 / 학기당 30차시	· 동아리 수요에 의한 수준 맞춤 교육 커리큘럼 - 옥과고등학교 : 심화 로봇 및 코딩 - 곡성고등학교 : 심화 코딩을 기반으로 한 게임 만들기 · 기초 교육을 기반으로 한 자기주도적 심화 코딩 및 로봇의 형태 구현을 강조	500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일상 속 디지털 친숙도 높이기 위한 일일 · 주말 · 방학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구분	대상	내용
주말 교육 프로그램	초등학교 3~4학년 (27명)	· 코딩 로봇 기초 - 햄스터로봇, 센서활용, 라인트레이서, 심화코딩 · 마이리틀 스마트팜 - 양액농도조절, AR 식물키우기, 3D모델링
	초등학교 5~6학년 (30명)	· 날려보자 드론드론 - 드론 기초설명 및 드론 제어 언플러그드 카드코딩 드론 · 미래식량 곤충 - 산업곤충 소개 & 알 분양 분변토 알기 & 행잉플랜트 만들기
여름 · 겨울 방학 집중캠프	곡성중학교 2학년 전수 (100명)	· 여름(브릭캠프) · 겨울(NEXT-LEVEL) 방학 캠프 진행 · 레고 브릭큐에이션을 활용한 로봇 조립, 블록코딩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실행 (체험 및 기초)



↑ 재단 꿈키움마루 & 관내 중·고등학교 업무협약



↑ 관내 중·고등학교 연계 STEAM 교육



↑ 초등학생 대상 방학 레고브릭캠프



↑ 찾아가는학부모 STEAM 아카데미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마을밀착형 지역특화공모사업 굿·센·스(GOOD·지역아동센터·SCHOOL)

지역아동센터 경북지원단 단장 | 권 현 진



❖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증가와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에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가족의 해체가 급증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의 기능을 담당하던 가정의 기능 상실
- 2017년 7월에 발표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하여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범정부 차원의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기본계획'(2017.12.22.) 마련
- 이에 경상북도는 2017년 10월 31일 경상북도교육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돌봄체계 실현을 목표로 마을밀착형 지역특화사업 공동 추진

❖ 목적

- 초등학교-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지역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역에 맞는 우수 아동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모델화하여 지역아동센터들이 연대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 방과 후 아동 방임 예방 및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 도모

❖ 사업 개요

- **사업명**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마을밀착형 지역특화공모사업
"굿·센·스" (GOOD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SCHOOL)
 ※ 마을밀착형 : 아동이 가정 외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 내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초등학교가 돌봄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하여 운영하는 마을(권역) 단위의 지역 특화 사업
- **대 상** 경상북도 소재 초등학교 학생
 - 1)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1개 팀으로 구성
 - 2) 초등학교:센터(1:1, 1:n, n:1, n:n) 자유롭게 편성 가능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주최	경상북도청 경상북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경북지원단 운영 위탁 · 사업계획 · 지역아동센터 경북지원단으로 사업비 교부 · 서류 심사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관련 전문가의 심사위원 추천 · 사업 설명회, 모니터링, 교육, 성과 보고회 등 사업 전반 참여 · 기타 논의 사항 있을 시 수시 회의 개최
주관	지역아동센터 경북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계획 및 지침 수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공모 심사 위원 구축 및 선정된 수행기관(센터)으로 교부 · 연간 사업 전반 수행 : 지역아동센터 대상 사업 공고, 사전 설명회, 지역별 컨설팅, 교사 및 종사자 교육, 조사연구, 성과 보고회 등
수행 기관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밀착형 공모사업 기획 및 운영 · 아동 모집 · 사업 전반 운영 및 회계 행정 처리 · 교육 및 성과보고회 등 행사 참석 ·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협조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밀착형 공모 사업 기획 · 아동 모집 · 교육 및 성과보고회 등 행사 참석 ·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협조

❖ 추진 경과

• 추진 현황

년도	진행 내용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청, 경상북도교육청 MOU 체결 - 사업 설명회 : 경상북도 내 초등학교장 및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대상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기관 모집 및 선정 : 27개팀 - 참여 기관 사전 워크숍 - 모니터링 - 성과보고회 : 인증패 전달, 우수 사례 발표 등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기관 모집 및 선정 : 35개팀 - 참여 기관 사전 설명회 - 모니터링 - 특화프로그램 개발 관련 조사연구사업 - 성과보고회 : 교육 마술, 인증패 전달, 우수 사례 발표 등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기관 모집 및 선정 : 28개팀 - 참여 기관 사전 설명회 : 온라인 - 모니터링 - 아동 실내 활동 프로그램 지원 : 보드게임 제작 - 굿센스 홍보 물품 제작 : 마스크줄, 볼펜, 리플렛 등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년도	진행 내용
2021년	- 참여 기관 모집 및 선정 : 31개팀 - 참여 기관 사전 설명회 : 온라인 - 모니터링 - 굿센스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연구사업 - 긴급 사례 지원 서비스 제공 : 방역용품, 식료품, 의복 등 긴급 사례 물품 지원 - 개별 아동 키트 지원 : 실내 운동 및 학습교구 지원 - 성과보고회 : 조사연구 발표회, 인증패 전달 등
2022년	- 참여 기관 모집 및 선정 : 29개팀 - 참여 기관 사전 설명회 : 온라인 - 모니터링 - 온라인 학습 기자재 지원 - 교사 및 종사자 교육 - 아동 실내활동 프로그램 제작 : 보드게임 - 홍보 물품 제작 : 포토북 제작 및 경상북도 내 초등학교 전수 배포 - 성과보고회 : 우수 기관 표창, 사례 발표 등
2023년	- 참여 기관 모집 및 선정 : 35개팀 - 참여 기관 사전 설명회 : 온라인 - 모니터링 - 아동육구 반영 측정을 위한 영향평가 조사연구사업 - 교사 및 종사자 교육 - 성과보고회 : 조사연구 발표회, 우수기관 표창 및 사례 발표 등

• 사업 참여 기관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참여팀	27개팀	35개팀	28개팀	31개팀	29개팀	35개팀
초등학교	31개교	38개교	30개교	34개교	31개교	35개교
지역아동센터	38개소	41개소	34개소	36개소	34개소	34개소
다함께돌봄센터	-	-	-	2개소	1개소	7개소
아동 인원	1,122명	1,358명	1,081명	1,066명	1,048명	1,160명

❖ 2023년 세부 사업 내용

1. 사업 설명회

- 일 시 2023년 2월 2일(목) 10시 30분
- 장 소 온라인(Zoom)
- 대 상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담당자
- 내 용 홍보 영상 상영, 2023년 사업 계획 안내, 예산 지출 방법 전달 등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2. 마을밀착형 지역특화공모사업 '굿센스' 공모

• 지원 분야

구분	지원내용	비고
택1 필수	프로그램형 (700만원 이내) · 지역사회 기관(단체) 연계 가능 ·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토요 등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 · 1일 3시간 이내 진행 · 예체능, 기초학습 등 특기 개발을 위한 단순 프로그램 제공	· 1개 유형 신청하였더라도 심사 결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유형에 맞는 목적 및 목표 설정에 유의함 · 긴급돌봄 추가의 경우 사업 계획서에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 명시하도록 함
	지역사회확산형 (1,300만원 이내) · 지역사회 기관(단체) 연계 필수 · 프로그램형과 같은 형태의 단순 프로그램 제공 가능 ·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아동들의 변화와 지역사회 문제해결, 다양한 체험 및 특기적성 개발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아동↔지역사회 상생 구조 확립 필요	
	방학 중 긴급돌봄형 (500만원 이내) · 센터 내 유휴 공간 활용 · 참여 아동 1명당 3.3 유휴 면적 필요 · 센터 등록 아동 외 추가 아동 긴급돌봄 지원 · 방학 중 또는 토요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급간식 지원, 숙제지도, 예체능 프로그램 제공 등	
추가	긴급돌봄형 (120만원 이내) · 센터 내 유휴 공간 활용 · 센터 등록 아동 외 추가 아동 긴급 돌봄 지원 · 방학, 초등돌봄교실 포화 및 초등학교 석면 공사, 휴원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서비스 제공 · 급간식 지원, 숙제 지도 등 · 참여 아동 1명당 3.3m ² 유휴 면적 필요	

• 심사 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필요성	20	· 아동의 욕구 및 문제 분석을 위한 사전 조사 실시(10) · 경험적 기반에 의한 문제의식 인지(5) · 해당 기관의 사업 수행에 대한 필요성(5)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적절성	40	· 아동 선정 기준, 모집 방법의 적절성(10) · 수행 사업의 시행방법, 시기, 횟수 등의 적절성(10) · 성과, 산출 목표 설정의 실현 가능성(10) ·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구성(10)
일관성 및 구체성	10	· 사업계획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일관적이고 구체적 작성 여부(5) · 사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의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5)
예산 편성의 합리성	20	· 사무비 및 사업비 구성과 투입 비용의 적절성(10) · 예산 항목의 각 요소(산출내역) 구체적 기입(10)
지역성 및 지속 가능성	10	· 지역적 특성 반영 및 지역자원활용의 적절성(5) · 기대효과의 충실성 등 종합적인 지속가능성(5)
총점	100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3. 모니터링

- **일 시** 2023년 3월~10월 내 팀별 일정 조율
- **장 소** 공모에 선정된 초등학교 또는 센터, 프로그램 진행 장소 등
- **대 상** 공모에 선정된 센터, 초등학교 담당자
- **내 용** 계획, 수행 과정 관련 면담, 제안 사항, 회계 서류 점검 등

4. 교사 및 종사자 교육

- **시 기** 2023년 9월(여름방학 종료 후)
- **장 소** 동서 또는 남북 권역으로 확인하여 교육장 섭외 예정
- **대 상** 굿센스 참여 초등학교교사 및 센터 종사자 약 70명
- **강 사** 미정
- **내 용** 협업 강화 및 기관별 소통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각 기관별 특성의 이해, 업무 소진 회복을 교육 주제 추가 구성, 센터 종사자 수료증 발급

5. 조사연구

- **시 기** 2023년 6월~10월
- **대 상** 굿센스 참여 초등학교교사 및 센터 종사자, 참여 아동, 참여 아동의 보호자 등
- **책임연구원** 미정
- **내 용** 굿센스 사업 아동의 욕구 반영 여부, 아동의 영향 평가, 굿센스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

6. 성과보고회

- **일 시** 2023년 12월 중(추후 안내)
- **장 소** 구미 금오산호텔(예정)
- **대 상** 굿센스 참여 초등학교교사 및 센터 종사자 약 70명
- **내 용** 경과보고, 홍보영상 상영, 우수사례 발표 등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유형별 세부 사업

구분	평가지표
프로그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 인성 교육, 기초 학습, 창의 미술, 음악(합창, 사물놀이, 바이올린, 우쿨렐레 등), 신체활동(풋살, 클라이밍, 배드민턴, 줄넘기 등), 독서지도 등 문화 : 공연 관람, 캠프, 발표회 등 정서지원 : 원예치료, 푸드테라피, 개별 상담 및 사례 관리 등
지역사회확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동네 팝업 놀이터 : 아동 놀권리 제공을 위한 마을 행사 진행 아동 봉사활동 : 아동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방법 순찰, 플로깅, 경로당 또는 요양원 등 방문 공연 등) 마을 행사 구축 : 아나바다 행사, 마을 영화제, 마을 축제, 지역 홍보 자료 제작 및 홍보 활동
방학 중 긴급돌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름방학 돌봄 공백 시 안전한 돌봄 공간 및 보호 서비스 제공 기초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제공 급간식 지원
긴급돌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 후 또는 토요일 돌봄 공백 시 안전한 돌봄 공간 및 보호 서비스 제공 기초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제공 급간식 지원

기대 효과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아동의 직간접 경험의 기회 제공
-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으로 인한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간 호혜관계 형성
- 지역사회의 아동을 위한 책임의식 강화
- 아동의 다양한 활동 참여로 인한 참여권 향상 및 주도성 확립
-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 돌봄 필요 아동 발굴 및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



경북형 보드게임 제작

❖ 2022년도 굿센스 사업 우수사례

긴급돌봄형 문경시 가은초등학교+가은지역아동센터

가은초등학교와 가은지역아동센터는 2019년부터 굿센스 사업에 참여한 팀으로 매년 다양한 유형으로 아동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22년에는 긴급돌봄형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가은지역아동센터는 지자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타 지역아동센터에 비해 비교적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공간의 장점을 활용하여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하며, 단순 돌봄뿐만 아니라 요리, 악기, 역사 교육을 통해 학습과 예체능 분야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문경시 가은읍은 읍 단위 지역으로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외에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간의 협업으로 온종일 돌봄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굿센스 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긍정적인 효과도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어 아동과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다.



↑ 악기교실(주1회/40회)



↑ 요리교실(주1회/10회)



↑ 역사교실(월1회/4회)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늘봄학교

방과후·늘봄학교 소식

알림

방학 중 긴급돌봄형 군위군 군위초등학교+군위지역아동센터

군위초등학교와 군위지역아동센터는 2019년부터 굿스네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22년에는 여름방학 중 긴급돌봄에 참여하였다. 여름방학 긴급돌봄은 방학 중 한시적으로 초등학교 석면 제거 공사, 창틀 공사 등으로 돌봄교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유형이다. 군위지역아동센터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운동으로 방학 동안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히, 미디어와 비대면에 익숙해진 아이들을 위해 배드민턴, 볼링, 훌라후프, 피구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잠시나마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였다.

학교에서 부득이하게 방학 돌봄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긴급돌봄을 진행하였다. 이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건강한 먹거리 제공



↑ 건강한 운동



↑ 방학 중 긴급돌봄

지역사회확산형 구미시 고아초등학교+고아지역아동센터

고아초등학교와 고아지역아동센터는 2018년부터 지역연계형으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간 단순한 교류가 아닌 마을 차원에서 아동을 같이 키울 수 있는 체계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구미시 고아읍은 도농 복합 지역으로 아동이 즐길 수 있는 문화요소가 많지 않았다. 굿센스 사업을 통해 굿센스 합창 정기공연,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등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공연도 보고 즐길 수 있는 터틀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사이에 위치한 '고아읍사무소 다목적센터 놀이터'에 마련할 수 있었다. '동네방네놀이터' 사업은 이 팀의 시그니처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어린이 문화 활동을 통해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지역주민과 함께 꾸려나가며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기획부터 준비, 행사 진행까지 모두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으며, 고아초등학교의 모든 아이들과 고아읍 지역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고아읍의 연중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아동의 체력증진 및 마을환경 정화 활동, 환경교육 등을 목적으로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플로깅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도 마을을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고아지역아동센터와 고아초등학교가 연계하여 방학동안 꾸준하게 틈새돌봄을 운영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굿센스 사업기간이 아닌 겨울방학(1~2)월에도 틈새돌봄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동네방네놀이터



틈새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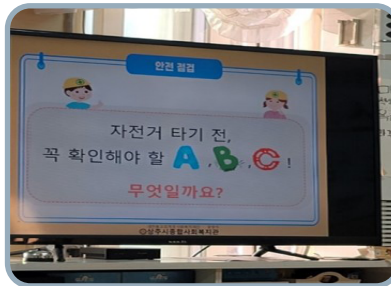
플로깅 활동

지역사회확산형 상주시 상영초등학교+상주아동복지센터

상영초등학교와 상주아동복지센터는 2018년부터 굿센스 사업에 참여한 팀으로 상주시 내에 있는 다양한 특산물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연계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상주 꽃감을 활용한 요리대회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시로써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자전거로 지역 문화 탐방 등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저탄소 녹색 성장에 발맞추어 안전한 자전거 이용에 도움을 주는 '꿈 실은 두 바퀴 자전거 라이딩' 프로그램에, 우리 고장을 바로 이해하는 체험 프로그램 '굿센스랑 노는 게 제일 좋아~'와 자기개발 프로그램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를 접목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 등 마을 안에 있는 기관의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역에서 나고 자라는 특산물을 찾아 들여다보고, 만져 보고, 맛을 보고,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기록물로 제작할 수 있다.

올해는 합창단을 구성하여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합창 연습을 하고 무대에서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연계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굿센스 사업 참여하는 아동들이 타일 벽화 그리기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의 작품을 학교 강당 입구에 부착하여 학교 공간을 같이 꾸며주기도 하였다.

지속적인 정기 회의를 통해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분리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위해 함께하는 민간 협업 체계로 굿센스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 꿈 실은 두 바퀴 자전거 라이딩



↑ 굿센스랑 노는 게 제일 좋아

✎ 주요 언론기사

● 최근 3개월 동안 언론에 게재된 방과후학교·초등돌봄·늘봄학교와 관련한 중요 기사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강원) 지자체·지역사회 협력형 강원 'THE자람 늘봄학교' 운영

(이뉴스투데이, 기자 - 2023.4.4.)

- 강원도교육청,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업체제 강화를 통해 공백 없는 돌봄 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
- 4일 강원도교육청 'THE자람 늘봄학교 운영 계획'에 따르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저녁돌봄교실 △주말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
- 저녁돌봄교실은 인력채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후 5시 이후 학교 내 돌봄 전용교실을 활용해 지자체가 운영
- 주말돌봄교실은 주말에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학생을 위해 춘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원도교육청이 7월부터 시범운영 하는 사업으로 성과분석 후 확대 지원할 계획
- 학교돌봄터는 방과 후부터 20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초등학교는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운영 주체가 돼 돌봄서비스를 제공. 학교돌봄터로 화천초 내에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 있으며 9월부터 운영할 예정
-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돌봄 사업으로 도내 33곳에 개소해 운영 중
- 출처 :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015>

● (경북) 상주, 미래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한다

(대구신문, 이재수 기자 - 2023.4.4.)

- 상주시는 경북도 교육청과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은 상주시청-경상북도교육청-상주교육지원청이 공동 추진하는 교육 협력 사업
-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일선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 양육 환경을 만들어 지역민 생활만족도 증대, 지역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는 사업
- 주요 협약 내용은 △(교사·학생 등) 주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골자로 한 온마을 아이들 교육지원센터 운영 △면 지역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한 온마을 아이들 스쿨버스 운영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온마을 아이들 3in1 스테이션) 조성(신축) 등으로 2031년까지 3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
- 출처 :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021>

● (광주) 광주시교육청, 온마을이음학교 광산협력센터 '이음' 출범

(글로벌경제신문, 김영수 기자, 2023.4.9.)

- 광주시교육청이 광산구청과 손잡고 온마을이음학교 광산교육협력센터(센터명 이음)를 출범
-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온마을이음학교' 설치·운영은 '2023년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시교육청과 광산구청이 함께 공모해 선정된 교육부 사업. 초등돌봄 등과 같은 주민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민·관·학이 공동으로 추진
- 온마을이음학교 사업의 3대 방향 ▲교육협력 기반마련 ▲학교 자율 책임운영 ▲교육자치 확대
- 이와 함께 ▲광산교육 협치체계 구축 ▲주민의 활발한 교육 참여 기반 조성 ▲민·관·학 학습공동체 운영 ▲학교와 마을을 잇는 상생교육 활성화 ▲미래를 준비하는 일반고 역량 강화 ▲청소년 자기주도성 신장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브랜드 개발 ▲칸막이 없는 협력의 8가지 세부 전략을 수립
- 출처 :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2885>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 **(사회) 초1~4학년도 건강체력평가 추진... 학교스포츠 클럽 2배 늘린다**

(서울신문, 김지예 기자, 2023.4.11.)

- 교육부가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시행하는 건강체력평가(PAPS)를 초등학교 1~4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체육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도 늘릴 예정
- 교육부는 '2023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
- 올해는 '체육운동아리'를 운영해 평소 체육활동을 좋아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참여하도록 지원. 체육운동아리는 체육활동에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놀이, 게임과 접목한 신체활동을 소규모로 하는 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아침, 방과후 시간에 활용
- '늘봄학교'의 체육활동 지원과 체육 사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의 4배 규모인 528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 지난해 초·중·고교생 1인당 예체능·취미교양 사교육비는 월평균 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
- 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11010003&wlog_tag3=daum

• **(일반) "미래세대 육성하자"...금융지주 회장들, 돌봄 시설 늘린다**

(한국금융, 한아란 기자 - 2023.4.13.)

- 주요 금융그룹이 돌봄 센터 등 아동 보육시설을 적극 늘리고 있음. 저출산 문제 해결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
- 신한금융그룹은 신한금융희망재단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 '신한 꿈도담터' 돌봄 지원 대상을 기존 초등생에서 영유아를 포함한 미취학 아동까지 확대
- KB금융그룹은 지난 2월 교육부와 '늘봄학교 및 초등돌봄체계 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500억원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
- 하나금융그룹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00곳에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시행
- 출처: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304131726323697f09e13944d_18

• **(서울) 서울 중구 남산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늘고 있다, 왜 그럴까?**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2023.4.13.)

- 학생이 줄어들어 고민이던 남산초등학교에 학생 증가. 13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에 따르면, 2021년 197명이던 학생 수는 2년간 14% 증가해 올해 현재 230명이 재학 중
- 중구는 이 같은 긍정적 현상을 교육경비 보조금과 돌봄·방과후수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 올 한해 중구가 유치원·학교 등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학생 1인당 보조금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89만 4000원
- 중구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돌봄은 남산초등학교 전체 학생 230명 중 43%에 해당하는 100명이 이용 중. '1인 1악기 교실' 등의 방과후교실은 90% 이상이 수강
-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도 학생들을 불러모으는데 한 몫.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잡월드와 협약을 맺고 진로직업체험을 지원
- 출처: <https://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49966>

• **(사회) 이주호 "교육개혁, 자금이 골든타임"...'돌봄·디지털·대학 집중'(종합)**

(뉴스시스, 김정현 기자, 2023.4.19.)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 부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에서 지난 1월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한 교육개혁 4대 분야 10대 과제를 다시 정리한 '교육개혁 3대 정책'을 발표
- 첫째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초등 늘봄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으로 대표. 영유아와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를 최우선 고려하고, 저출생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
-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내 돌봄, 문화·체육 등을 뜻하는 학교 복합화 시설 활성화 방안도 국가책임 교육, 돌봄 정책 테두리 안에 포함
- 둘째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선정. 오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에 도입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진단, 학습 격차를 해소
- 마지막은 전날인 18일 확정 발표한 '글로벌대학30' 추진 방안 등 '대학 개혁'
-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19_0002273186&cID=10205&pID=10200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 (일반) 돌봄정책 성공하려면 노동·고용·복지 연계 돼야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2023.4.25.)

- 전문가들은 가정 양육이 빠진 학교 현장에서만의 돌봄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고 강조. 또 전담인력 확충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시 20여년간 되풀이 돼 왔던 도돌이표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이성희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장은 "양질의 돌봄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5년씩 시범적으로만 단기인력을 활용하다 보니 여러 부작용들이 야기되고 있다"며 "단위학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 아예 시교육청에서 돌봄사업 자체를 직영하거나 위탁해 특정 주체가 전문성과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
- 이진욱 민주노동당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 대전지부장은 "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보다도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고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강사료도 적을 뿐더러 교육의 연속성도 길지 않다"며 "대다수의 돌봄전담사들이 3~4시간의 시간제 인력인데 이들의 일자리를 안정화 하지 않고 땀질 인력으로 외형만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다만 늘봄학교 자체의 기본 취지에는 적극 공감
- 장기적으로 돌봄정책의 성공은 노동, 고용, 복지 정책이 연계될 때 가능하다는 점도 시사. 이 센터장, "부모들이 오후 6시에 퇴근해 가정 양육을 하는 것이 사실 제일 바람직하다"며 "늘봄학교가 노동, 가족 정책과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이유. 범부처 사업으로 확대돼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
- 이 지부장,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교육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호소
- 출처: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832>

● (사회) 교육부 차관 "늘봄학교 지원법 마련해 돌봄 인력 확보할 것"

(연합뉴스, 기자, 2023.5.2.)

- 장상윤 교육부 차관, "가칭 늘봄학교 지원법을 마련해 학교·지역 여건에 맞는 인력들이 제도적인 근거 하에서 충원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장 차관,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대전 원양초등학교를 방문해 대전시교육청, 교원,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열고 "2025년(늘봄학교) 전국 확대 전에 반드시 법안이 제정되고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
- 교육부는 원하는 초등학생은 모두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2025년 전국에 확대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3월부터 대전을 비롯해 인천,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 21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 원양초도 시범학교 중 한 곳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2150000530?input=1195m>

● (일반) 돌봄교실 보내는 학부모들이 가장 만족하는 건 '학생 관리'

(경향신문, 남지원 기자, 2023.5.8.)

- 지난해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한 학부모들은 교육프로그램이나 급식보다 '학생 관리'에 더 만족.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는 특별한 프로그램보다도 '아이를 돌봐준다는 것' 자체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
-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초등 돌봄교실 학부모 22만 2406명(전체 돌봄 학생의 76%)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초등 돌봄교실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34.1%가 돌봄교실 운영 중 '학생 관리'에 가장 만족.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운영(31.2%), 돌봄교실 환경(19.1%), 급·간식 서비스(15.6%)
- 자녀가 '학교 내에서' 방과 후 돌봄을 받는 것 자체에서 안정을 얻는 학부모들이 많은 것으로 보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교육부가 초등학생과 예비취학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에서는 응답자 8만9000명 중 81.4%가 온종일 돌봄 이용 희망 기관으로 '초등 돌봄교실'을 택함
- 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081517001>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 (서울) 도봉구 '초등 돌봄버스 타요' 운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2023.5.12.)

- 도봉구(구청장 오연석)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월 8일부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위해 도봉 '초등 돌봄버스 타요'의 운행을 시작
- 도봉 '초등 돌봄버스 타요'는 학교 밖 교육공간을 활용해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히 이동권이 제한돼 있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통해 이동을 지원하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 실질적 돌봄 공공사업
- 출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51206285778463>

• (일반) 방과후학교 참여 10년 새 반토막...초등생 회복세, 고교생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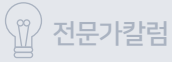
(뉴시스, 김경록 기자, 2023.5.20.)

-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방과후학교 참여율 대조. 초등생 참여율은 지난해 45.5%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57.1%의 80% 수준까지 회복. 하지만 고교생 참여율은 지난해 26.0%에 그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원만 있다면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더 끌어올려 사교육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음
- 정재영 이화여대 교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줄 때 사교육 참여가 늘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방과후학교 참여를 늘리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고등학교에서는 내신이 중요하고, 뒤떨어진 아이들을 학교가 케어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보다는 비교과 수요가 더 많다"고 설명. 그러면서 "교사들의 방과후학교 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
-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가 이끈 연구진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의뢰로 수행한 연구에서 총 3가지 '코로나 이후 방과후학교 모델'을 제시. 첫 번째는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학교 중심 공교육 강화모델', 두 번째는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 교육혁신모델', 마지막은 '학교-지역사회 협력모델'로, 방과후학교 운영 과정에서 지역사회(마을)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중시하는 모델
- 하지만 방과후학교로 사교육 줄이기는 시험과 입시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나라 교육 구조상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음
-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19_0002309957&clD=10201&plD=10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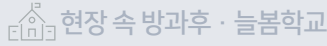
• (사회) 인구감소지역 학교에 '복합시설' 지으면 사업비 최대 50% 교부금 지원

(한국일보, 홍인택 기자, 2023.6.6.)

-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부지에 주민도 이용 가능한 문화시설을 지으면 사업비의 최대 절반이 교육재정에서 지원
- 교육부는 올해부터 공모를 거쳐 5년간 매해 40개씩 200개 학교를 선정해 학교복합시설 신축 지원. 지원 규모는 연간 3,600억 원씩 총 1조 8,000억 원
-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의 남은 공간에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문화체육시설로,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함. 학생 수가 줄어 생기는 유휴 공간을 주민 복지에 활용하면서 학생들에게는 돌봄·방과후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음
-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 하나를 짓는 데 250억~350억 원이 필요. 그간 필요한 재원은 주로 지자체에서 부담, 중앙정부나 교육청 예산은 일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최대 50%가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
- 재정자립도 및 늘봄학교 연계 여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고, 인구감소지역이면 지원율이 더 높아짐
- 공모는 기초지자체가 관할 교육청에 사업계획서를 보내면 교육청이 교육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 교육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9월 중 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
-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0612030001925?did=NA>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 (사회) 교육부 '미래교육돌봄연구회' 발족...늘봄학교
중장기 발전 논의

(뉴스1, 서한샘 기자, 2023.6.9.)

- 교육부, 늘봄학교 중장기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자문단 '미래교육돌봄연구회'를 발족
- 연구회는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총 14명으로 구성. 교육 · 돌봄을 비롯해 복지 · 인구 · 정신건강 · 건축 ·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포함
- 연구회는 늘봄학교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
- 연구회에서는 늘봄학교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를 비롯해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공간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 중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 방과후 운영체제 개편, 지역돌봄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
- 올해 말에는 연구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권고안 발표
-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071285>

• (경북) 유치원-초등학교 연계 늘봄학교 문 연다

(대구신문, 김상만 기자, 2023.6.19.)

- 경북교육청은 지난 16일 교육부와 함께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하는 중산초등학교를 방문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함께하는 '유초이음형' 늘봄학교 운영을 협의
- 현장 방문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방과후 과정 운영 우수 사례 발굴 · 확산을 통해 늘봄학교의 질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방과후돌봄정책과, 육아정책연구소, 김천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관계자가 함께 함
- 중산초등학교는 농산촌 벽지학교로 '온(溫)종일 엄마품에(愛) 유초이음형 늘봄학교'모형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수준과 수요를 고려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해 유초이음 교육을 실천
- 출처: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195>

• (사회) 학점제·방과후 수업 온라인 신청...'4세대 나이스' 내일 개통

(뉴스시스, 김경록 기자, 2023.6.20.)

- 교원과 학생 · 학부모가 활용하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나이스·NEIS)' 서비스 대폭 개편
- 교육부는 오는 21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1만2000여개 교에 '4세대 나이스' 서비스를 개통
- '4세대 나이스'는 2011년 개편된 3세대 나이스에서 디지털, 자동화 등 사용자의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해 개편. 지난 2020년 9월부터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기관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2,824억원을 들여 개발
- 학부모는 4세대 나이스를 통해 자녀의 방과후 학교 및 교외체험 학습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 정보 및 성적을 조회
-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20_0002345140&cid=10201&pid=10200

• (사회) 교육부 늘봄 시범운영 학교 300곳으로 확대

(헤럴드경제, 박지영 기자 - 2023.6.27.)

-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이 기존 5개에서 8개로 확대되면서 늘봄 시범 운영 학교가 기존 200개에서 300개로 증가
- 교육부는 부산 · 충북 · 충남교육청을 2학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
- 이번 시범 운영 참가 교육청은 양질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 학생들이 더 많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1개 프로그램 수강 시 1개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후 1+1'을 도입.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 기간 또한 최대 1년까지 연장
- 부산교육청은 아침 · 틈새 · 저녁 · 방학 등 돌봄유형을 다양화해 촘촘한 돌봄을 운영
- 충북교육청은 지역 특색을 살려 농촌진흥청과 협력한 농장체험을 운영. 여기에 생명 과학 등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
- 충남교육청은 지역사회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 지역대학과 연계한 에듀테크 활용 블렌디드 방과후학교를 운영
-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627000037>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특별기사

• (기고) 늘봄학교 성공의 든든한 힘, 학교시설 복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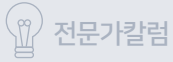
(머니투데이, 장상윤 교육부 차관 - 2023.3.29.)

- 우리나라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한 지 오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그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인구가 줄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학교
- 인구 급감의 '쓰나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강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줄고 있는 만큼, 한명 한명을 소중하게 돌보고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야만 나라에 희망
-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질 높은 방과후 과정과 돌봄을 제공하되 원하는 경우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정책. 새 학기가 시작된 이번 달부터 5개 교육청, 214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
- 사교육을 대체할 만한 방과 후 프로그램도 늘봄학교에서 시도. 축구, 수영 등 체육활동, 학교 오케스트라와 같은 예술 활동, 정규교과에서 배우기 어려운 심화 코딩학습 등 다양하면서도 학원을 능가하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
- 이를 위해서는 물적 토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함. 늘봄학교의 활동 수요에 대응하고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화·체육·여가 시설을 함께 확충하자는 것이 바로 '학교시설 복합화'.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유관 사업간 연계를 총괄하고,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수준 높은 복합시설을 학교를 중심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 기초지자체 중 아직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에 우선 집중할 예정
-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수영장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받고, 도서관에서는 독서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공연장과 콘서트홀에서 문화예술 체험활동이 가능. 주말에는 학교가 지역주민들에게 훌륭한 여가활동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
- 학령인구 감소는 돌봄과 교육을 가정과 학교의 몫으로만 남겨두지 않음. 우리 아이들이 전국 어디에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소중하게 돌봐주고 교육하는 일은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몫
-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2715044546701>

• (기고) 늘봄업무, 교원대신전문인력에게맡겨야

(울산제일일보, 신기왕 교육학박사, 울산연구원 책임교육위원 - 2023.6.22.)

- 지난 3월 공개된 2022년 사교육비 지출은 전년도 대비 10.8% 증가한 역대 최대로 조사
-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 수요를 촉발하는 요인은 일차적으로 사교육 효과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생각에 기인. 사교육은 성적 향상, 좋은 대학 진입, 이후 취업과 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여, 사교육이 자녀의 미래를 위한 가장 효율적 투자라고 판단
- 하지만 성년이 된 아이를 둔 부모들은 입시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비효율적이며, 사교육의 효과가 일부 학생에 국한된 것이고 큰 효과는 없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경험. 여전히 학부모 대부분은 사교육이 미래를 위한 효과적인 투자라고 생각
- 사교육 문제를 극복하려는 대책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 '사교육비 절반'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한국교육개발원에 '사교육비절감센터'를 설치.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 정책의 핵심은 공교육 내실화와 방과후학교 활성화로 요약. 방과후학교 활성화 덕분에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학교가 일정 정도 흡수하면서 사교육비 감소 효과로 이어짐
- 방과후학교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학교 수업의 보완적 형태로 운용되던 특별활동을 정책적으로 통합, 확대하면서 시작. 방과후학교의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사교육비 경감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정책은 학교 밖에서 수행되는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고 학교 밖의 우수한 프로그램이 방과 후에 개설. 이명박 정부의 방과후학교 활성화 정책은 사교육 절감에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이후 방과후학교 업무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교육청 업무로 전환되면서 정책추진력 약화
- 방과후학교는 교육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시장적 가치와 학교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이라는 공공적 가치가 교차하는 지점. 방과후학교는 개인의 선택을 공적 영역으로 흡수하여 정책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고질적 사교육 문제를 극복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
- 출처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148>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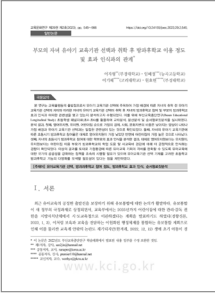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 주요 연구 결과

• 최근 3개월 간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초등돌봄에 관한 주요 연구 결과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 **일반논문** : 부모의 자녀 유아기 교육기관 선택과 취학 후 방과후학교 이용 정도 및 효과 인식과의 관계
- **저 자** : 이자형, 임혜정, 이기혜, 원효현
- **간행물** : 교육문화연구 제29권 2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3.

• 주요내용

본 연구는 교육불평등의 출발점으로서 유아기 교육기관 선택에 주목하여 가정 배경에 따른 자녀의 취학 전 유아기교육기관 선택의 차이와 이러한 자녀의 유아기 교육기관 선택이 취학 후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 및 부모의 방과후학교 효과 인식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교육종단연구(Bus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초등학생 패널자료(초4~초6)를 활용하여 교차분석, 분산분석 및 순서형로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영어유치원, 유치원, 어린이집 순으로 가정의 경제, 사회, 문화자본의 비중은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나 가정 배경과 유아기 교육기관 선택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자녀의 유아기 교육기관에 따른 초등시기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대체로 영어유치원이 가장 낮았던 반면에 어린이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의 초등시기 방과후학교 참여에 대한 학부모의 효과 인식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영어유치원보다는 유치원이,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방과후학교의 학업 도움 및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가정환경에 따른 유아교육 기회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유아교육기관 선택 기제를 고려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기능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섬 지역 초·중등 방과 후 교사의 인식을 통해 본 청소년 인공지능(AI) 교육 실태*

윤솔, 박성현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대두되고 있는 AI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교육 소외 지역으로 손꼽히는 섬 지역의 AI 교육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섬 지역 AI 교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실제 전남 신안군섬에서 AI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방과 후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시행하여 섬 지역 AI 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AI 교육정책의 분석을 통해, 국내 AI 교육의 정책이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 수업 내에서는 교사가 주제를 유동적으로 선정 및 수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조차도 관련 교육정책의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교급에 따라 AI 교육에 할당하는 교육 시수를 늘리고, 해당 수업에 대한 탄탄한 교육과정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둘째, AI 교육 교사는 AI 기술을 수업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AI 경험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현재 신안군 AI 교육은 컴퓨터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교육과정 내에 컴퓨팅과 관련된 기초적인 기술뿐만이 아니라 머신러닝, 코딩과 같은 내용이 교육에 포함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수업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AI 윤리 교육과 디지털 소외에 대한 개념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섬 지역 학생들의 AI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논의가 필요하며, 관련 교육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섬이라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환경 자원이 많다. 이러한 섬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인공지능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등의 수업이 진행되어 학생들에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일반논문** : 섬 지역 초 · 중등 방과 후 교사의 인식을 통해 본 청소년 인공지능(AI) 교육 실태
- **저 자** : 윤솔, 박성현
- **간행물** : GRI연구논총, 제25권 2호,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23.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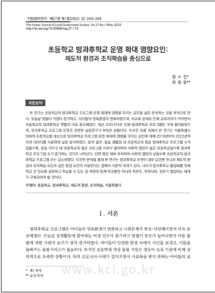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대두되고 있는 AI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교육 소외 지역으로 손꼽히는 섬 지역의 AI 교육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섬 지역 AI 교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실제 전남 신안군섬에서 AI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방과 후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시행하여 섬 지역 AI 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AI 교육정책의 분석을 통해, 국내 AI 교육의 정책이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 수업 내에서는 교사가 주제를 유동적으로 선정 및 수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조차도 관련 교육정책의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교급에 따라 AI 교육에 할당하는 교육 시수를 늘리고, 해당 수업에 대한 탄탄한 교육과정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둘째, AI 교육 교사는 AI 기술을 수업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AI 경험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현재 신안군 AI 교육은 컴퓨터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교육과정 내에 컴퓨팅과 관련된 기초적인 기술뿐만이 아니라 머신러닝, 코딩과 같은 내용이 교육에 포함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수업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AI 윤리 교육과 디지털 소외에 대한 개념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섬 지역 학생들의 AI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논의가 필요하며, 관련 교육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섬이라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환경 자원이 많다. 이러한 섬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인공지능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등의 수업이 진행되어 학생들에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늘봄학교

방과후·늘봄학교 소식

알림



- **일반논문**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영향요인 : 제도적 환경과 조직학습을 중심으로
- **저 자** : 정수진, 최정윤
-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제27권 1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23.

• **주요내용**

본 연구는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아이들의 양육환경이 변화하였으며, 사교육 문제로 인해 교육격차가 커지면서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59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 생활권 내 초등학교의 평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가 많을수록, 동일 자치구 내 초등학교의 평균 프로그램 수 보다 열위하여 사회적 열망이 높은 초등학교일수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대비 우위하여 사회적 열망이 낮을수록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방과후학교 운영이 내부 요인뿐 아니라 제도적 환경과 조직학습 요인과 같은 환경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나아가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학교 간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장 마련과 함께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 정부가 협업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 주요 입법동향 및 정보

● 최근 3개월 간 제 ·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 초등돌봄 관련 입법활동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입법동향 요약

A. 시행

-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 지원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1건을 개정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온종일돌봄 관련 조례 9건, 「부여군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 등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15건,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지역아동센터 관련 조례 9건,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등 아이돌봄 관련 조례 28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 관련 조례 2건,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기타 방과후 · 돌봄 관련 조례 2건이 제 · 개정되었습니다.

B. 진행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4건 발의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등 14건의 온종일돌봄 · 다함께돌봄센터 · 아이돌봄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늘봄학교



방과후·늘봄학교 소식

알림

◎ 입법동향 상세

A. 시행

1. 행정입법

법령명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관	일시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19338호, 2023. 4. 11.,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 지원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시행 2023. 10. 12.

2. 자치입법

가. 온종일 돌봄 관련 조례

지역	조례명	소관	일시
경기도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오산시	(일부개정) 2023. 7. 17.
전라남도	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제정) 2023. 7. 14.
경상남도	김해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일부개정) 2023. 7. 13.
경상남도	창녕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일부개정) 2023. 6. 29.
경상남도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일부개정) 2023. 6. 28.
충청북도	진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일부개정) 2023. 6. 2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부개정) 2023. 6. 1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일부개정) 2023. 6. 11.
충청남도	천안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제정) 2023. 5. 1.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늘봄학교



방과후·늘봄학교 소식

알림

나.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조례

지역	조례명	소관	일시
충청남도	부여군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일부개정) 2023. 7. 1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부개정) 2023. 7. 7.
전라남도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일부개정) 2023. 7. 3.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정) 2023. 6. 3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군위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일부개정) 2023. 6. 30.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일부개정) 2023. 6. 28.
충청남도	서천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일부개정) 2023. 6. 28.
경상북도	안동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일부개정) 2023. 6. 9.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제정) 2023. 6. 1.
충청남도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일부개정) 2023. 5. 1.
전라북도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순창군	(일부개정) 2023. 4. 28.
충청북도	괴산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일부개정) 2023. 4. 21.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제정) 2023. 4. 20.
전라북도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북도 익산시	(일부개정) 2023. 4. 1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제정) 2023. 4. 12.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다. 지역아동센터 관련 조례

지역	조례명	소관	일시
경기도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오산시	(일부개정) 2023. 7. 17.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일부개정) 2023. 7. 14.
전라남도	장흥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제정) 2023. 7. 13.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일부개정) 2023. 7. 11.
경기도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안양시	(일부개정) 2023. 6. 2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부개정) 2023. 6. 28.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일부개정) 2023. 6. 11.
경상북도	안동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일부개정) 2023. 6. 9.
전라북도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부안군	(일부개정) 2023. 5. 22.

라. 아이돌봄 관련 조례

지역	조례명	소관	일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일부개정) 2023. 7. 14.
경기도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경기도 연천군	(일부개정) 2023. 7. 13.
경상북도	포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제정) 2023. 7. 12.
전라남도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일부개정) 2023. 7. 7.
전라남도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일부개정) 2023. 7. 6.
전라북도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전라북도 장수군	(제정) 2023. 7. 1.
경기도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경기도 의왕시	(일부개정) 2023. 6. 3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일부개정) 2023. 6. 28.
전라남도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일부개정) 2023. 6. 28.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일부개정) 2023. 6. 28.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일부개정) 2023. 6. 2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부개정) 2023. 6. 28.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늘봄학교



방과후·늘봄학교 소식

알림

라. 아이돌봄 관련 조례(계속)

지역	조례명	소관	일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부개정) 2023. 6. 28.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일부개정) 2023. 6. 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정) 2023. 5. 2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제정) 2023. 5. 19.
경기도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이천시	(제정) 2023. 5. 12.
전라북도	고창군 아이돌봄지원 조례	전라북도 고창군	(제정) 2023. 5. 10.
충청북도	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제정) 2023. 5. 4.
경기도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경기도 가평군	(일부개정) 2023. 5. 1.
경기도	하남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	경기도 하남시	(일부개정) 2023. 5. 1.
전라남도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제정) 2023. 4. 27.
충청남도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일부개정) 2023. 4. 10.
충청북도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제정) 2023. 4. 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제정) 2023. 4. 7.
경상북도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일부개정) 2023. 4. 5.
경상북도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일부개정) 2023. 4. 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제정) 2023. 3. 31.

마.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조례

지역	조례명	소관	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전문개정) 2023. 6. 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제정) 2023. 3. 28.

바. 기타 방과후학교 및 돌봄 관련 조례

지역	조례명	소관	일시
전라북도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북도 진안군	(일부개정) 2023. 6. 3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일부개정) 2022. 6. 1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B. 진행

1. 국회입법

법령명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관	일시
<p>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p>	<p>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시·도지사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함.</p> <p>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아이돌보미의 퇴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아이돌보미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됨.</p> <p>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식비, 교통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업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아이돌봄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p>	<p>여성가족위원회</p>	<p>발의 2023. 5. 31.</p>
<p>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의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일정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질환자 등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 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p> <p>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p> <p>이에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p>	<p>여성가족위원회</p>	<p>발의 2023. 4. 20.</p>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늘봄학교



방과후·늘봄학교 소식

알림

법령명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관	일시
<p>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p>	<p>현재 정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 등의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가구는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p> <p>그러나 베이비시터 등 민간 육아도우미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임. 민간 서비스에 대한 품질 제고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 자격제도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p> <p>이에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p> <p>아울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p>	<p>여성가족위원회</p>	<p>발의 2023. 4. 3.</p>
<p>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부)</p>	<p>중전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돌보미가 배치되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p>	<p>여성가족위원회</p>	<p>발의 2023. 3. 30.</p>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 · 늘봄학교



방과후 · 늘봄학교 소식

알림

2. 자치입법

가. 온종일 돌봄 관련 조례

지역	조례명	소관	일시
전라남도	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장성군	2023. 4. 21. ~ 2023. 5. 10.
경기도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오산시	2023. 4. 19. ~ 2023. 5. 10.

나.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조례

지역	조례명	소관	일시
충청북도	영동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영동군	2023. 5. 25. ~ 2023. 6. 16.
충청남도	「당진시 다함께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당진시	2023. 4. 21. ~ 2023. 5. 11.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2023. 03. 10. ~ 2023. 03. 30.

다. 지역아동센터 관련 조례

지역	조례명	소관	일시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성남시	2023. 7. 17. ~ 2023. 7. 2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 7. 13. ~ 2023. 8. 2.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의정부시	2023. 7. 12. ~ 2023. 8.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3. 6. 22. ~ 2023. 7. 12.
경기도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오산시	2023. 4. 19. ~ 2023. 5. 10.

라. 아이돌봄 관련 조례

지역	조례명	소관	일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 7. 10. ~ 2023. 7. 31.
경기도	「부천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경기도 부천시	2023. 6. 26. ~ 2023. 7. 17.
경상북도	포항시 아이돌봄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포항시	2023. 5. 3. ~ 2023. 5. 23.

마.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조례

지역	조례명	소관	일시
경기도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수원시	2023. 4. 20. ~ 2023. 5. 10.



전문가칼럼



현장 속 방과후·늘봄학교



방과후·늘봄학교 소식



알림

🔔 <방과후·늘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 통권 83호 원고 모집

-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늘봄중앙지원센터에서는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정책, 운영현황, 성과, 우수사례, 행사 안내 등에 관한 정보공유와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목적으로 <방과후 늘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를 웹진 형식으로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의 현장 이야기를 보다 다양하게 다루고자 뉴스레터에 수록될 원고를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다음 호 게재를 위한 원고 제출기간은 2023년 10월 27일(금)까지이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자격

-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관련 유관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
-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 및 학부모
-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관련 학계전문가 등

2 분야

	항목	내용
1	전문가칼럼	•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관련 전문가 의견
2	현장 속 방과후·늘봄학교	• 각 지역 및 학교의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우수사례 소개 • 방과후학교 강사 및 초등돌봄전담사 후기 등

3 제출방법

- 이메일(psh17@kedi.re.kr) 제출

4 문의

-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돌봄연구팀(방과후·늘봄중앙지원센터): 박성희 연구원 043-530-9557

5 기타

- 제출된 원고는 내부 심사를 통해 선정
- 선정된 원고는 투고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 선정된 원고의 투고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